

---

# 2023-1학기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회의록

---

2023-04-06(목) 19:00

102관 3층 대강당

의장 류동현: 현재 재적대표자 392 명 중 참석대표자 280 명으로 개회정족수 196 명을 넘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9 시 19 분 시간부로 2023-1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이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5 대 총학생회장 경영학부 18 학번 류동현입니다.

사회자 서예나: 의장의 개회선언에 따라 2023-1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진행을 맡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5 대 부총학생회장 전자전기공학부 20 학번 서예나입니다. 이번 회의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의결 안건으로 1 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체제 개편 안건,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심의 안건을 진행하고, 보고안건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업무 보고, 각 위원회 별 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식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회의 진행 방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2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정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에 따라 해당 세칙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언자는 비표를 들어 발언 의사를 표시하여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실 수 있으며, 먼저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부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의 답변의 경우, 5 분 이내 3 인 이하로 제한하며, 의사진행 발언은 2 분 이내로 하실 수 있고, 특별한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자 토론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출석인원 1/2 의 찬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1 회로 합니다.

더불어 참여 대표자 수가 재적 대표자의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회의가 중단됩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전 제출한 사유와 같이 불가피하게 중도 퇴장하여야 하는 대표자께서는 회의장 뒤쪽에 있는 스태프분들께 비표와 퇴장 사유를 밝히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방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해당 세칙에 대해 읽고 숙지하실 수 있는 시간 1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부여 드린 1분이 경과했습니다.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과 3학년 대표 김민지: 철학과 3학년 대표 김민지입니다. 발언에 호명할 수 있는 사람과 시간에 대해서 5분 제한, 3인 이하라고 나와있는데 13조에 나온 찬반토론에 대해서만 그런 것인지 일반 안건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장 류동현: 일반 안건에도 적용된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관련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1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자료집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각 단위별로 배정한 학생회비에 대해 총학생회 회칙 제 57조, 제 58조에 의거하여 학생회비 확정 및 예산안 확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1학기 학생회비 중 총학생회로 배정된 금액에 대한 계획을 학생대표자 여러분께 의결 받음으로써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먼저, 각 단위별 학생회비 확정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자료집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각 단위별로 배정한 학생회비 배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동일하게 학생회비 9,500원 중 단과대학 기본배정액 4,400원, 역비율 환산액 250원, 추가배정액 200원으로 배분하였으며, 중앙 단위 배정액 중 80%에 해당하는 3,520원을 총학생회로, 20%에 해당하는 880원을 동아리 연합회로 배정하였습니다. 전학대회비는 250원입니다. 현재 3차 학생회비까지 입금 및 배부 완료된 상황이며, 4~5차 학생회비에 대해서는 5차 학생회비 입금 완료 이후 일괄 배부할 예정입니다. 세부 단과대학, 중앙단위 및 전학대회 배정액은 자료집 6페이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자료집 내 5페이지와 6페이지 학생회비 배정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30초를 부여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부여 드린 30초의 시간이 모두 경과 하였습니다. 각 단위별 학생회비 확정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관련 질의가 없으므로 1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내 첫 번째 의결안건으로 각 단위별 학생회비 확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현재 의결 수가 참석인원수와 맞지 않으므로 재의결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현재 의결 수가 참석인원수와 맞지 않으므로 재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학생 대표자분들께서는 스태프가 찬반 인원수를 잘 셀 수 있도록 좀 더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각 단위별 학생회비 확정에 대한 의결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여 인원 292 명 중 찬성 287 표, 반대 0 표, 기권 5 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자 서예나: 다음으로 1학기 총학생회비 예산안 확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대표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집 7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 표와 같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지난 64 대 중앙비상대책 위원회로부터 인계받은 이월금 15,924,209 원, 1학기 학생회비 30,673,280 원 등 총 52,167,488

원입니다. 지출 예정으로는 중앙집행위원회 지원 1,530 만원, 축제 지원 500 만원, 위원회 지원 200 만원 등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서예나: 자료집 내 7 페이지 예산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30 초를 부여하고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4 학년 대표 이성화: 에너지시스템공학부 4 학년대표 이성화입니다. 자료집 6 페이지에 보면 단과대학 규정에서 중앙단위 및 전학대회 배정액 부분에서 총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의장 류동현: 단과대학 배정액과 중앙단위 그리고 전학대회 배정액의 총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단과대학으로 갔던 비용은 9500 원에 학생회비 9500 원에서 기본 배정액 4400 원 그리고 역비율 환산액 250 원 추가 배정액 200 원 부여해 드린 거고요.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역비율 환산액을 계산을 하다 보니 엑셀 시트 상 소수점 여러 자리까지 포함을 했을 때 반올림해서 1 의 부분이 더 반올림 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4 학년 대표 이성화: 전학대회 배정 부분에서 약 200 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이 부분은 중앙단위총액이라고 하는 저희가 전학대회 비용을 제외하고 총학생회나 동아리 연합회 비용만 더 했을 때 중앙 단위로 지급하여서 계산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집 내 7 페이지 예산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30 초를 다시 부여하고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부여 드린 30 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3 학년 대표 김호준: 마이크 문제로 웃음을 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1 학기 전학대회비가 210 만원으로 적혀있는데 217 만 8500 원으로 배정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저희가 전학대회 비용 210 만원만 사용한 이유는 자료집 인쇄비를 210 만원만 지출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3 학년 대표 김호준: 그러면 7 만 8 천원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장 류동현: 네 맞습니다. 배정되어있는 금액을 다르게 사용한 이유는 자료집 인쇄비를 210 만 지출할 예정이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78500 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질의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관련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1 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내 두 번째 의결안건으로 1 학기 총학생회비 예산안 확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1 학기 총학생회비 예산안 확정에 대한 의결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여 인원 294 명 중 찬성 288 표, 반대 1 표, 기권 5 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자 서예나: 다음으로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체제 개편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대표자분들께서는 자료집 8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혹시 의사 진행 발언이실까요?

심리학과 3 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 학년 학년대표 대리인 임화현입니다. 해당 안건이 회칙에 어긋나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자 발언하려 합니다. 제 12, 13 차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총학생회에서는 운영 변경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회 업무조정 관련 사항인데요,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 논의하실 때 대표자분들께서는 119 페이지 회칙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업무조정 동의에 있어 학생회

칙 제 30 조 5 항과 55 조 1 항에 근거하여 개편안이 55 조 3 항에 의해 사업 방향과 내역 등을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5 조 3 항에 근거하여 전학대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명칭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칭 변경이라고 하면 위원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의 취지와 그 위원회의 목적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명칭 변경하는 것만을 변경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인권복지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복지위원회로 개편된다고 적혀있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본래와 다릅니다. 이는 개편이 아니라 신설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폐지 신설로 보게 된다면 그 위원회 신설은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는, 적어도 장애인권위원회 선에서 개정하려 하면 적어도 21 조에 의거해... 개정 또한 전학대회에서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세 안건 다 중운위에서 상의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사전논의가 아니라) 전학대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총학생회 회칙상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위원회 운영 규정 변경만 전학대회 관련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안건으로 의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나 안건이 무효하다고 알리고 싶습니다. 규칙 발언 이상입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의견을 잘 들었고요. 그 질의 답변하실 시간에 다시 질의 주시면 제가 한번 더 상세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발언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추가 의사 진행 발언을 위해서는 추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 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라 규칙 발언인데요. 우선 진행 발언이 아니라 규칙 발언이고 규칙 발언이므로 질의 및 답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 규칙 발언은 진행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위배되는 것을 바꾸자 발언이 있는 것인데 이를 안건 설명에서 다시 이야기하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 류동현: 그러면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우선 업무조정에 대한 동의를 중운위에서 다루었다는 점에 문제 제기하신 것 같은데 총학생회 회칙에 보시면 30-5 항 55-1 항을 제외한 조항에서는 총학생회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안하게 된 것이고, 어떠한 전학대회의 안건으로서 상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고 이를 통해 전학대회에서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변경하기 전 운영규정에 의거해 준비한 것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던 것이고 그 말씀 주신 제 55 조 1 항 같은 경우는 각 위원회는 별도의 운영과정을 두고 한 해 사업 방향과 내역 예산 그리고 결산을 전학대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은 저희가 변경하기 전 규정이 장애인권위원회와 인권복지위원회 기존 규정에 의거해서 전학대회를 준비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와 목적이 좀 동일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전적 의미로 그 개편이라고 하면 조직 따위를 고쳐 개편 편성한다는 의미이고, 설립은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킨다고 사전적 정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의를 봤을 때 저희가 진행하려고 지금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장애인권위원회의 정체성과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와 신설이 아닌 운영 규정 변경의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개편을 하려는 운영 수정안에 대해서 중운위의 동의를 구하고 어쨌든 가안으로 최소한의 전학대회 안건 상정을 하기 위한 건으로써 제작된 운영 규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전학대회에서의 민주적인 토론을 저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개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21년도 2학기 졸업준비위원회가 졸-취업위원회로 변경하려 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전학대회를 소집하지 못하자 전학대회에 준하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낸 것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상정하기 위한 의결만 진행하였지 지금처럼 사전에 중운위 동의를 받거나 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졸준위가 기존에 하던 행사와 사업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명칭 변경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려 한 것이고, 차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우려되어 의견 드립니다. 다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말씀드렸다고 전학대회에서 업무조정 건과 그리고 운영 규정 변경 건을 다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건으로 제안하기 위해 전학대회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효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다 보니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운영 규정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4학년 대표 이성화: 네, 이성화 에시공 4학년대표입니다. 아까 대표자분께서 규칙발언이기 때문에 진행과는 별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이 규칙 발언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규칙 발언 또한 의사 진행 발언 중 일부이며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 세칙에 따르면 발언은 2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발언 시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동현: 총학생회 산하위원회는 문화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총 4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인권복지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의 업무 조정을 통해 체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제안이나 필요에 따른 설립이 아닌 2019-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당시 회원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현장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절차로 인해 공간 및 장학금이 확보되지 못한 채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권위원회의 장학금 미지급, 공간 미확보 등에 대한 문제는 작년 2학기 전학대회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몇 년째 해결해야 할 문제로써 남아있습니다.

또한, 인권복지위원회의 사업들이 복지 위주로 치중되어 있다는 대표자들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기존 업무가 인권복지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업무 과중 등의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중을 따질 순 없겠지만 상대적 업무 편차가 큰

인권복지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되는 학생인권이 없도록 포괄적인 업무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5대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1) 총학생회 회칙과 개편 시 진행할 사업 계획안 등을 바탕으로 업무 확장에 대한 동의 2) 업무 확장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운영 규정 변경에 대한 동의 등 추후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업무 조정 및 그에 따른 운영 규정 변경이 승인되었고 이번 전학대회의 안전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체제 개편 안전 내 1 번째 의결 안전으로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의장 류동현: 장애인권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제안이나 필요에 따른 신설이 아닌 일정 이상 학생들의 연서로 안전이 상정되어 가결됨으로써 신설된 산하위원회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동의로만 이루어지는 자치기구의 추가 신설에 대한 우려,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공식적인 산하위원회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22-2 학기 전 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장애인권위원회의 장학금 미지급, 공간 미확보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써 남아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과 업무량의 우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인권복지위원회의 상대적 업무 과중과 복지에 편중된 사업들, 장애인권위원회의 장애·비장애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정된 사업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인 인권 사업/집중적인 복지 사업을 다루는 산하위원회로 업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총학생회 회칙 제30조 총학생회장의 임무 및 권한 관련 조항에서 5항 ‘총학생회장은 기타 총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와 제55조 1항 ‘각 위원회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총학생회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분담하여 해당 업무를 관장, 집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들에 근거하여 장애인권위원회는 기존의 업무를 포함하여 그 외 소홀히 여겨지던 학생인권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인권복지위원회는 복지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권위원회->학생인권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학생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학생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해당 내용을 1 분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건 중 첫 번째 안전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자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사회자 서예나 :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사회학과 2 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윤: 해당 안전에 대해 말해주실 이민지 학우님께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장 류동현: 이민지 학우님의 발언권 부여를 위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이민지 학우님의 발언권 부여를 위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이민지 학우님의 발언권 부여에 대한 의결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여 인원 285명 중 찬성 242 표, 반대 7 표, 기권 36 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자 서예나 : 우선 의사진행 발언 하시려는 분이 계셔서 의사 진행 발언 후 이민지 학우님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이현덕: 해당 안건에 대해 장애인권위원장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해당 건에 총학생회칙 제 19 조 6 항에 의거하여 장애인권위원장님의 소환을 요청드립니다.

사회자 서예나: 해당 의결에 대해서는 발언자 분의 발언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작성 중이니, 발언 및 질의를 해주시는 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크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발언자 이민지: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 학생들과의 대화 없이 총학생회의 입장 하나로 기구의 존폐 문제를 의결에 올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전학대회 전 이틀 간 장애학생 독방에서 ‘장인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전달드립니다. 설문폼 결과, 각 75%, 100%의 장애학생이 장인위 폐지 반대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의견란을 통해 남겨진 장애학생 다수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장인위에 대해 장애학생 다수는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주셨고, 장애학생 의견 없이 만들어진 안건의 비민주적인 과정과 절차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표자 여러분, 2024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학생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포괄적 인권을 다룬 학인위가 과연 장애학생 당사자들의 권리를 바로 잡기 위한 최선이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장애학생 당사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주시고, 호소를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이상이신가요?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이민지 학우님께서 발언해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장인위 폐지에 반대하신다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는 폐지가 아님을 대표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왜 폐지가 아닌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권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1분간 자료검토 하시고 이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여 드린 1분의 시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이미 사전에 주신 의사 진행 발언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 진행하고서 발언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논의함에 있어서 장애인권위원장도 함께 소환을 해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해주신 것이 맞으실까요? 그럼 장애인권위원장 소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서, 가결된다면 장애인권위원장을 소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장애인권위원장 소환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실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집계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282명 중, 찬성 269표, 반대 1표, 기권 12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지금 현장에 계신 장애인권위원장께서는 앞의 좌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이어서 다음 순서인 질의 및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입니다.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장애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다른 인권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에도 해당 장애인권 보장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피 1년 사업 계획안은 저희 내부 운영을 위해서 미리 작성한 것에서 추가하여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작년도 장애인권위원회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사업 7가지 중에서 현재 70% 정도 모두 진행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고 나머지 30% 사업에 대해서도 1학기 내에 완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지금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이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자동문이 설치된 교내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조절형 키오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사한다든지 추가적인 이동권이나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뿐만 아니고 방향성이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와 같은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에서 하던 사업에서 인권 사업만 추가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개편된다고 해서 진행 불가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황에 맞게 가능한 사업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교육자치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약 개편된다면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권 침해 사례를 저희가 접수해서 인권센터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인권 피해 사례 창출과 센터 같은 것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다루거나 아니면 성평등한 문화 확립을 위한 카드 뉴스 제작과 장애학생들의 축제 운영에 대한 개별적인 운영을 한다든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축제 부스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추가될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동일한 안전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1 회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인재학부 4 학년 대표 김재석: 공공인재학부 4 학년 대표 김재석입니다. 여기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의결해야 하는 안전이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과 그에 따른 명칭 변경을 인정한다인데, 안전 설명의 첫 문단에서는 이제 안전을 상정하신 목적으로 22 년도 2 학기 전학대회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장애인권위원회에 장학금 미지급이나 공간 미확보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학생들의 연서로 안전이 확정되어 가결됨으로써 신설된 산하위원회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적어 주셔서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과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학교 차원에서는 더 이상 산하위원회가 학생들을 연서로 상정되어 가결되고 신설된 산하기관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의장 류동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학금과 장학금 미지급과 공간 미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제 개편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거슬러서 가보면 2019 년도 2 학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연서명으로 900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장애인권위원회를 신설할 당시에는 분명한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장학금이나 공간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은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산하위원회로 인정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 자체가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별도의 산하위원회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해결, 취지에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설립될 당시의 과정에서 제가 문제점이라고 조금 인식을 했던 것은 학생들의 연서명으로 현장에서 안전이 상정되어서 가결됨으로써 학교에 최소한의 그런 공식적인 절차나 과정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공식적인 절차나 과정이 없어서 학교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하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 내부 산하위원회가 학교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물론 학교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공문을 발송함에 있어서라든지 그런 효력이 없는 단체로 인정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총학생회장으로서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인권을 다룰 수 있는 인권위원회를 개편할 것을 제안드렸고 저는 이 개편 과정에서 학교와의 최소한의 과정과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소한의 과정으로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후대에도 공식적이고 정당한 단체로서 저희 총학생회 산하위원회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체제 개편을 안전으로써 상정한 이유가 가장 크고 절대로 장인위 폐지나 아니면 업무의 축소 정책상의 축소가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 답변 관한 시간이 모두 초과되었습니다. 추가 발언을 위해서는 추가 부여할 것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장 류동현: 추가 질의자가 있으시면 저희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의결해서 그분들에 대한 질의를 듣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은 들어주세요. 네, 8 분.

사회자 서예나: 8 분에 대한 추가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8 인에 대한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해당 안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해당 안전에 대해 기권하실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의결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289 명 중 찬성 212 명 반대 39 명 기권 38 명으로 해당 안전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건이 가결됨에 따라 8 인에게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비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의장 류동현: 앞쪽에 계신 분부터 부여하겠습니다. 의장이 지명하면 지명 받으신 분부터 발언 해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학부 2 학년 대표 임동하: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물론 익명이지만, 작년 장애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내부고발 형식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쓰여진 글이지만 이런 자리에서 장애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장애인권위원장 박세욱: 우선 답변 드립니다. 굉장히 와전된 것이 많고, 폐지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저희는 폐지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65 대 총학생회이고, 작성해주신 분은 64 대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위원들을 선발할 때나 사업을 진행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 장학금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 재산권 횡령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장애인권위원장으로 있는 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을까요?

의장 류동현: 다음 8 인 중 답변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융합공학부 학생회장 안규상: 안녕하세요, 융합공학부 학생회장입니다. 일각에서 지적해주셨던 사안 중에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전 상정은 중운위 논의를 통해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상정된 것이 자료집에 담겨 있어 오히려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안전 상정을 통해 이해하기로는 이전 장인위 사업이 그대로 집행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인복위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소외될 우려가 있었던 소수자, 교수자와 수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인권까지 챙길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하고 확대된 업무에 맞게 명칭을 개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부 질의의 내용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정책의 배제나 기존 장애 학생을 위한 업무의 폐지처럼 왜곡될 수 있는 것 같아 여기 계시는 대표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기존 장애 학생을 위한 정책은 이전 장인위 활동과 같이 유지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세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이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사업의 축소나 폐지 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맞으실까요.

융합공학부 학생회장 안규상: 맞습니다. 이전에 장인위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질문드렸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세욱: 확인 차 한 번 더 질문드렸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이관 받은 인수인계 받은 사업들은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 마지막 순서 보고안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장애인권위원회가 개편 되더라도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올해 첫 장애인권위원회로 시작을 했을 때 연초 계획한 사업에서는 크게 많은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이 되면서 개강을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통행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주신 다른 분께서 이동권이나 교육권에 대한 것을 질문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연장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교내에 자동문이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학생 대표자 여러분은 많이 아시나요. 아마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니까요.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교내에 자동문이 설치된 건물은 310 관 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포탈을 탈 때마저도 본인이 휠체어를 밀면서 자동문이 아닌 여닫이문을 밀면서 휠체어가 낄 수 있고 그 끼는 과정에서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항상 안고 현재 계속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동권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 학생들에 대한 불편함을 제도나 교육권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전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데 저희가 해야 할 건 앞으로 대면 수업이 더 많아지고 있으면서 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그대로 연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더 추가로 엘리베이터와 교내 자동문 그리고 높이 조절용 키오스크를 이번 3월에 전수 조사했습니다. 총 24개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조사하였고 엘리베이터만 44개였으며 자동문은 약 6개 정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동권이나 혹은

교육권 이런 장애 학생들에 대한 사업을 전혀 축소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확장해 나가고 있고 더 실질적인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 나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답변 되셨을까요? 다음 아까 8 분 중에서 ... 네.

사회복지학부 2학년 대표 대리인 김민형: 이 자리에 학생대표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 자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자리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여, 일단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900 명의 연서명이 통과가 돼서 장인위가 신설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으며 그 뒤에는 바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900 명이 900 명의 연서명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학교의 반대로 부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저희의 모든 선택들이 바라는 어떤 어떠한 학생들이 바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그 학교에서 반대를 하면 반대한다고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게 학교에서 의견 충돌이 있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학회 측에서 오히려 학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어떠한 기구라든가 그리고 위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분업이라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분업이라든지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에 관련해서도 분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 다양한 분야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장애인 관련해서는 사이트 내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위원회 상황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통합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합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합쳐진다면 단순히 주어져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장애인 사업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장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연도에는 제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매주 모임을 진행할 때마다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인복위에서 업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따로 공부를 하고 사안 하나하나 신경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가져가시겠다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전문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만약에 상황이 반복이 됐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게 됐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못한 채 의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만 유지한 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첫 번째로 주신 질문, 900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우선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00 명 이상이 장애인권위원회의 필요성에 동의를 했다는 것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이 위원회로 충분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억압을 해서 저희가 진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을 때 900 명의 취지는 과연 부합하는 것일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학생들이 동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목적에 부합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개편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은 다음 좀 더 포괄적인 인권을 다룰 수 있는 기구로서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임기 내에 해결되지 못해도 이견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가 3년 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올해 안건으로서 성장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분업에 관련해서 효율성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인권적인 문제에 있어서 효율을 따질 수 ...

사회복지학부 2학년 대표 대리인 김민형: 효율성이 아니라 전문성입니다.

의장 류동현: 일단 효율적인 것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던 게 제 생각에는 인권적인 부분에 효율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을 따진다면 그러면 그냥 다른 사례를 예시로 그러면 저희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위원회에서는 축제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 선발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그리고 전문성을 우선 선발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총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의 폭이 너무 좁아진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19년도에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장애인권위원회가 설립될 당시에 인권복지위원회가 있었음에도 왜 인권복지위원회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그런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기구라서 독립적으로 설립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장애 인권 외에도 기존에 지금 소외되고 있는 인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복지위원회가 업무가 넘치는 상황이어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복지를 다루는 위원회와 인권을 다루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발 빠르게 한 명 한 명 학생 장애 학생들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지금 인수인계 받은 바로는 지난 3년간 장애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통을 맡아서 진행했던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그리고 장애 학생들과의 추가적인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장애인권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던 사업들을 저희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인식 개선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대면 학사인 만큼 장애 학생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난 방학 때 진행되었던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지금 중앙마루 뻘뻘로 광장에 배리어프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장애학생지원센터가 학생처

소속 부서인데 학생처에도 얘기해서 장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사회자 서예나: 추가 질의이실까요?

사회복지학부 2학년 대표 대리인 김민형: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 위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장애인과 관련한 일을 다 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중앙대학교 학우들을 위한 마음으로 그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제 거기 안에서 전문성을 풀어나가기 위해 지난 장인위에서도 계속해서 세미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성을 계속 키워나가는 역할 속에서 이 업무에 인복위의 것까지 맡는 것에 우려를 가졌고요, 각 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산하기구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한 업무를 담당시켜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필요하다면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필요하다면 산하 기구를 투표해야 되고 이거는 어떤 업적에 따라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장인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해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러하게 되어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까 포괄적인 인권을 계속 말씀 하셨는데 포괄적인 인권이라는 말은 어떤 부분이 약간 와이드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세욱: 관련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업하는 게 전문성이나 인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잘 개발하고 발전될 방향일 거라고 하실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장애인권을 동아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타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위원회 혹은 인권위원회 등에서 장애인권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 학교들의 사례에서도 장애인 인권과 그다음에 타 인권에 대해서 구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매번 어떠한 인권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해야 되냐 이미 인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인권 의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복지 업무들로도 이미 과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권 업무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인권을 다뤘기 때문에 장애, 비장애 학우들을 위한 인권 외에는 다른 인권 의제는 다룰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소수자 혹은 외국인 등 소수자의 영역에 있는 분들의 인권은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려고 했던 거고 장애인권위원회에서 흡수하는 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장애인권위원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기반해서 추가로 가이드라인 기존에도 교육권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들을 살려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예비군 학습권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하는 데 훨씬 더 전문적인 역량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사실 효율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지만 인권을 나누는 것 또한 저는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방향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권 또한 결국 인권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권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장애인권위원회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 인권 의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장애인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인권 자체가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더 많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출발한 시작점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을 더 키우고자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에 대한 질의는 저도 계속해서 저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업무 과중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치려고 개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가 개편하면서 장애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위원회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사업을 흡수해 온 개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류동현: 다음 추가 의결 해주셨던 분.

정치국제학과 2학년 대표 대리인 문휘진: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2학년 과 대표 대리인으로 나온 문휘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학생회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실 때 학교에서 장인위의 취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주요 근거가 무엇이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면 총학생회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설명과 또 방금 답변에서도 장인의 설립 당시 900명의 연서명 절차가 공식적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900명보다 단지 중운위 11명 중 8명의 동의로 이루어진 현 안전의 상정 과정이 훨씬 더 절차적 정당성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총학생회장님께서 절차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구분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학생회장님과 그리고 장애인권위원장의 답변을 각각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동현: 첫 번째 질문이 학교 측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어보시는 거 맞으실까요? 우선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설립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의견만으로 신설될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주요 답변으로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학금이 돈 받으려고 사실 저희가 학생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학금이란 공간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그게 어떤 공식적인 인정의 명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00명 이상의 연서명이 공식적이지 않았다고 답변드린 적은 없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900명의 학우분들이 동의하셨을 때는 장애인권위원회라는 단체가 신설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식

적인 단체로서 당당하게 활동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해서 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단체라고 인정하지 않고 물론 이 활동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학교의 인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어떤 정말 당당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라도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인정을 받아 내고 그리고 공식적인 단체로서 후대에도 정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당당하게 학생자치기구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3년 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것 같아서 해결하고자 안전을 상정한 것이고 절대 그 900명의 학우분들의 의견이 가뻐다거나 아니면 소홀히 이어져서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진짜 동의한 취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지금에서라도 달성하기 위해서 체제 개편을 통해서 학교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고 좀 더 포괄적인 인권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치국제학과 2학년 대표 대리인 문휘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당당함과 효력 없음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기준이 불명확했는지를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은 지금 행정상으로 장애인권위원회실은 없습니다. 107관 학생회관 그러니까 아직도 성평등위원회실로 행정 처리가 되어있고 성평등위원회가 있을 당시에든 기존에 있던 성평등위원회실에 장애인권위원회가 생김으로써 그냥 그 공간으로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사실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얼마든지 공간을 배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맞서 싸워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개편을 제안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답변되셨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 답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과 4학년 대표 박혜림: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4학년 대표 박혜림이라고 합니다. 안전 상정된 배경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안 설명에도 나와있듯이 대표자들의 지속적인 피드백, 상대적 업무 편차가 큰 혹은 장학금이나 공간미확보 문제라고 나와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중운 위 안전 상정 이전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안전을 상정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중재 과정이 있었는지 여쭙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2학기 때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임기 초에 사업 계획을 당시에 업무 분배를 했을 때 이미 인권복지위원회가 업무가 너무 포화된 상태였고 장애인권위원회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

라는 판단을 저희 내부에서 했던 것이고 질문, 질문을 조금만 더 요약해서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과 4학년 대표 박혜림: 지금 업무조정 그리고 명칭 변경이라고 안전이 올라와 있는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학생회 측에서 어떤 중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쭙어봤습니다.

의장 류동현: 일단 인권복지위원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지에 치중해야 된다는 내부 논의가 이루어졌고 장애인권위원회가 임기 초에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너무나 협소한 사업들을 다루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내부 논의를 통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안전으로서 상정을 했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다룸으로써 전학대회 안전으로까지 상정되게 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과 4학년 대표 박혜림: 아 혹시 지금 올라온 안전이 방안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류동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리학과 4학년 대표 박혜림: 위원회가 이미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안전을 상정하신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의장 류동현: 인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 포화 상태여서 그런 상태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고 장애인권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협소한 사업들을 다루고 있어서 확장하고자 개편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심리학과 4학년 대표 박혜림: 제가 더 시간을 끌 수 없어서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 하는데, 제가 여쭙본 것은 인복위의 업무가 많다면 바로 조직 개편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논의의 과정이 있는지 하여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의장 류동현: 어떻게 해볼까라는 논의 과정이 지금 안전 선정 배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아까 의결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아직 발언하지 못하신 분이 세 분이시네

요. 뒤에 계신 분 먼저 하시겠습니다.

공연영상창작학부 영화전공 3학년 대표 김현민: 네 안녕하세요.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영화전공 3학년 대표 김현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앞서 다른 분이 주신 질문에 대해 학생회 측이 안전을 제안하실 의도를 아까도 지금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희가 드린 질문이 그게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권위원회가 명칭을 변경하고 체제가 개편된다면 학교 측에서 기존 장인위에게 부여했던 장학금 미지급이나 공간 미확보와 같은 페널티가 사라지고 연서명을 통해 신설된 산하기구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공식적인 기구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게 확실히 보장되는 상황인지, 단순 추측이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보장된 게 아니라 추측에 그친다면 과거 900명이 합당한 절차를 밟아 만들어낸 제도를 조직 개편한 이유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학생 대표자이고 자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학교 본부의 지시에 맞춰 학생들의 목소리로 이루어낸 것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학교에서 장인위에게 부여했던 페널티에 대해 학교 측과 맞서 싸우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합당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총학생회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산하기구 체제 개편이 아니라 학교에 부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동현: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제가 개편 개편이 된다면 이러한 장학금이라든지 공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에 대해서 확답을 받은 게 있느냐라고 답변을 하셨던 게 맞을까요.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장애인권위원회 최초 설립 당시에 그런 최소한의 과정과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해결하고자 저는 저희 내부에서 논의드렸던 내용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본부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루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우선 작년 22년도 2학기 때 저도 장애인권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했던 인원으로서 장애인권위원장과 같이 학교 본부에 장학금 장학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가 있고 그러나 여전히 학교 본부에서 답변은 그런 활동들이나 그런 것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의장 류동현: 네, 다음 두 분이셨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지금 세 분이 손을 드셨는데, 아까 의결하실 때 손을 드셨던 분들만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아까 의결 때 손 드셨던 두 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 진행하고 추가 1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하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c반 비상대책위원장 최윤경: 간호학과 c반 비상대책위원장 최윤경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 때 주신 의결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2번과 3번의 경우 명칭 변경과 운영 규정 변경에 대한 의결이신데요, 37조 중운위 업무 및 권한에 대한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13차 중운위 회의록에 따른 전학대회 안건 목록에 의결 안건 나의 명칭과 현재의 자료집에 기재된 의결 안건 나의 명칭이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운위에서 전학대회의 안건 상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처럼 가안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중운위에서 이러한 논의를 다루었던 것이고요. 명칭 변경과 운영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37조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을 보시면 37조 8항에서 규정의 제정 및 규정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총학생회 회칙 내에서 규정이라고 하는 산하위원회 규정과 예산 자치 운영 규정 두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운영위원들의 합의를 어느 정도 정당한 합의를 구하고 운영 규정을 변경한다 라는 것이 전학대회의 안건으로서 상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거친다 라는 의미로 의결을 진행해 주셨다고 봐주시면 되고 13차 회의록에 나와 있는 의결 안건 명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결 안건 명이 다른 것은 회의 당시 이렇게 의결을 했으나 회의 이후에 추가적인 조금 세부 안건으로서 나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 온라인으로 의결을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동현: 한 분 더 진행하고 나머지 한 분은 추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 2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운: 안녕하십니까 사회학과 2학년 대리인 강서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장애인권위원회는 2019년 900인 이상의 연서명을 통해 설립에 대한 안이 진행되고 다시 전학대회에서 설립되게 됐습니다. 장인위 설립 과정이 공식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전학대회에는 중앙대학교 학생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모습이 보입니다.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들의 의견과 대표자들의 취지와 의견이 공식적이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9년도에 장애인권위원회가 설립됐을 당시에는 장애 학우 분께서 수업권과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자퇴 했던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장지원과 인권센터 그리고 인복위가 존재했는데 그래도 해당 학우분의 수업

권과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이 안전을 다루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선례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벌써 총학생회장님께서서는 장인위의 그런 사업이 협소한 사업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앞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성을 반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권위원장님께서 서울대와 기타 학교들의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는 장애인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중앙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도 해당 학교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장인위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기구여서 장인위의 장학금 지급과 장소 배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측에 공식적인 인정이 없으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권이 반영될 수 없다고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측의 인정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과 의결에 의해 설립된 기구가 폐지되는 것이 민주적인 학생자치의 흐름에 악이 되거나 잘못된 선례가 될까봐 크게 우려됩니다. 진정으로 학생자치가 당당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학생자치자들의 의견이 학교 측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서 싸우는 행동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연서명 900명이 했던 것이 공식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절차라든가 과정이 부족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활동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절대 그 900명에 대한 상황이 공식적이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의도는 없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학교 본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맞서 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씀 주신 부분에는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후대에도 지속될 문제라고 우선은 좀 생각을 했고 장학금과 공간을 장애인권위원회의 장학금과 공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하자 라기보다는 지금 장애 인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외되는 인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인권복지위원회에서도 그 소외되는 인권들을 추가로 다루기가 버거운 상황이니 그런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이 지금 해당 안전으로 절충안이 해당 안전으로서 나온 거고 그리고 계속 폐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립이라고 하면 그 기관이나 어떤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킨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어떠한 기구를 폐지하고 다시 설립해서 장애 인권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장애인권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권위원회에서 기타 소외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다뤄야 할 학생과 관련된 인권을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개편이라고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장애인권위원장님께서도 이어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세욱: 먼저 질문에 주신 분께서 학생 대표자분께서 장애인 학우들에

대한 인권을 깊이 고민하고 또 같이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2019년도에 자퇴한 학생이 발생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인권복지위원회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시에 장애인권위원회 설립으로 이어졌고 또 지금 현재와 같은 인권복지위원회가 업무가 과밀하고 장애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 외에는 인권 의지를 다룰 수 없는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면 19년도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성소수자가 성소수자인 것을 아우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자퇴하는 사건이 발달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 의견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근본이 됐던 원인부터 해결하고자 이렇게 개편을 학생 대표자 여러분 앞에서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인정이 없다고 우리 학생자치가 멈춰야 되나라고 물으셨는데요.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이 통과되었고 통과된 이후에 이러한 과정들을 과정의 수순 제대로 밟았다면 지금 현 장애인권위원회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 공식적이고 더 힘 있는 발언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수자에게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권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인정받지 않은 산하위원회인데 여기서 어떠한 것들을 제시했을 때 힘이 실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늘 학교와 싸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었다면 그 과정과 절차를 늦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서라도 다시 바로 잡고 진행함으로써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는 해결하고 또 그 이후에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싸워서만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두고 저는 학교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움 되는 게 있다면 저는 학교와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위원회가 학교의 순응적이다라는 모습이 보일지언정 학교로부터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얻어낼 수 있다면 저는 순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는 저희 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학생 자치는 우리 학생들의 이득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 대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사례를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현재 장애인 인권위원회가 산하기구로서 인정 학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권위원회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권위원회를 그대로 계속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미 3년간의 시도에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그 첫 단추인 문제부터 바로잡고 해결해 나가고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동아리나 아니면 고려대나 연세대 장애인권위원회가 있는 것도 저희도 확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들도 인권위원회가 있고 그 인권위원회에서 자기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학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분이 19년도 당시에 자퇴했던 학생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인권에 대한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사회학과 2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윤: 인권 문제 전문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폐지가 아닌 개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제를 따로 다루지 않았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 드린 것이고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은 학교 측의 판단을 반영해서 말씀해주신 걸까요? 그리고 혹시 운영 규정 변경 관련해 학교측과 미리 합의하고 오신바 있는 것일까요?

의장 류동현: 논의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사회학과 2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운: 이게 제가 정확히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개편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장학금이나 공간을 개선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앙대학교 학생자치에서는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안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혹시나 학생들의 의견을 미리 반영되지 않았는데 학교 측과 이런 논의가 오간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동현: 학교 측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이 따를 수 있게끔 최소한의 합의를 거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1인 발언에 대한 의결 진행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한 분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대표자 1인에게 추가 의결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대표자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자들께서는 비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비표를 들어 주신 대표자께서는 추가 발언권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 아닌 의사 진행 발언이라고 합니다. 발언 철회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철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김민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싶은 것이 대표자분들 뿐만 아니라 스태프 분들도 현재 수고와 피로가 많을 듯하여 잠시 휴게 시간을 가진 뒤 의결 진행하는 것을 제의 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의결 해야 할 안건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해야 할 안건들을 의결한 뒤 휴게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대표자분들이 동의하신다면 현재 안건에 대한 추가 의결이 마무리 된 후, 다음 안건인 총학생회 회칙 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1인 추가 질의를 받는 것에 대한 의결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추가 한 분에 의 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281 명 중 찬성 223 표 반대 15 표 기권 43 표로 해당 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건이 가결됨에 따라 추가 1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철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김민지: 철학과 3과대 대리인 김민지입니다. 2시간이 넘는 회의에도 열정을 보이시고 발언권을 주신 총학생회장단과 학생 대표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총학생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학생인권위원회로 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권복지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한 이유도 성평위가 폐지됨으로써 그 업무가 인권복지위원회로 넘어가서라고 안전 제안 설명 때 말씀해주셨는데 장애 학생 의제를 다루는 기구가 인권위원회 안으로 조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장인위의 업무가 인권 업무까지 인권위가 담당하게 되므로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회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분배하여 일하는 기구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학생 대표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총학생회 업무가 과중하다 하여 단과대 학생회를 전부 없애고 총학생회로 해야 할까요. 단과대 학생의 업무가 과중하다 하여 학과 학생회를 단과대로 조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의제에는 각 분야를 전문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인권과 복지로 업무 등이 분명히 나뉘는 건 현재 복지위원회와 일상사업국 등 이미 존재하는 부서들 간 업무 충돌이 있어서 분명 필요해 보이지만 장애 인권은 특히 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시각 필요하기 때문에 장인위라는 명목을 가진 인권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 조정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총학생회장님과 장애인권위원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사업들이 인권복지위원회로 넘어간 것은 맞지만 지금 기존에 이어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 외에도 성평등위원회의 순기능을 하던 그런 사업들은 업무 과중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소외된 사업들을 챙기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에 신설됨에 따라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좀 더 넓은 인권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존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인권 사업들을 흡수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소외되고 있던 인권들을 흡수해서 포괄적인 인권위원회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세욱: 질문 주신 부분 중에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인권 문제가 넘어오게 되면 장애인 인권위원회가 그걸 흡수하게 되면 학생인권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 관련 의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2개는 장애인권위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인권 질의서 혹은 전체학생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과 그다음에 장애 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인권복지위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장애인 인권위원회에

서 추가로 받게 되는 부분은 성폭력 신고 창구이고 그 다음에 비건 학식 문제입니다. 때문에 인권복지위원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4가지 사업은 충분히 인수할 수 있고 그걸 인수한다고 해서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는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다음으로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후보들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발언 기회는 1회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님께서는 대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류동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입니다. 현재 산하위원회 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장님을 포함한 학생 대표자분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제안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64대 인권복지위원장직을 맡았던 입장으로서는 현 체제에서 인권복지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의 복지 사업은 손이 많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 주를 이루므로 인권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또한 인권복지위원회의 전체 사업 중 인권 사업의 비율은 당대 인권복지위원장의 기조에 따르므로 복지 사업에 치중되는 시기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복지위원회에 인권 복지 기능을 분리하고 인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총학생회장단께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시한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조 및 사업 계획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제시한 학생인권위원회의 예정 사업은 장애인권위원회의 사업과 인권복지위원회의 인권 사업을 단순히 합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료집에 작성된 안전 설명과는 달리 학생복지위원회와 인권복지위원회의 사업 계획 및 구조를 조직화한 데 있어 중앙운영위원회 및 장애 학생 등 당사자와의 논의 과정은 부재하였으며 단순히 총학생회장단께서 제시하신 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동의 의결이 중앙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의 전부였습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기구를 통합한다면 현 장애인권위원회조차도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때 대체 텍스트를 누락하였는데 장애 학생의 학습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과 더불어 다른 인권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작년 인권복지위원회 인권 사업을 추진했던 입장으로써 장애인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이관이 된 인권 사업의 그런 업무량이나 비중이 그렇게 적다는 것에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오랜 기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학우 922명의 연서명과 2019 학년도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통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반면 총학생회에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기구를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직은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전형이 대폭 확대되어 중앙대학교에 진학하는 장애 학생의 수가 많아지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에 대한 수요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장애 학생들을 비롯한 학구적인 인권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사업을 추진해 나갈 사람들이 필요하지 기구의 단순 통합만이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다음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 개편안은 장애 학생의 권리 보장을 이루어내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설사 이번 대회에서 장애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같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는 물론 장애 학생 등의 당사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대표자 회의에서는 본 안전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다음 대표자 회의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및 장애 학생들 등을 비롯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 학기 대표자 회의에서 개편안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동현: 그러면 우선 답변하기에 앞서서 수정안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수정안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의 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유보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장애 당사자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2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해당 안전을 재논의한다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정안 발의라기보다는 새로운 안전 상정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우선 말씀 주신 것에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운위에서도 이 안전에 대한 사업 계획안을 설명드릴 당시 저희 내부 계획안으로서 작성된 것이니 감안하고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안전 상정을 다룰 해당 안전을 포함해서 안전 상정을 중운위 내에서 다룰 당시 자유롭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학대회 안전으로서는 충분히 상정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표자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장애인권위원회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체성을 그대로 영위하거나 또는 확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대표자들이나 모든 학생들의 의견 장애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런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 상황은 잠시만요. 해당 수정안은 지금 해당 수정안 내용 자체에서 변경하는 수정안이 아니고 해당 결과를 유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안전 상정으로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또 한 분 더 질문 있으신 분? 두 번째 수정안 발의하실 분 의견도 듣고서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국제학과 3 학년 대표 홍성현: 정치국제학과 3 학년 대표 홍성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정안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해 주신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처럼 총학생회의 인권복지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또한 장애인권위원회가 폐지될 경우에 발생할 문제들, 앞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학생들의 이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우려들 또한 동의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할 수정안은 장애인권위원회의 명칭을 학생인권위원회로 변경하고 인권복지위원회 명칭을 학생복지위원회로 분할하여 장애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좀 더 확대 및 변경 개편한다라는 방안에서 장애인권위원회는 그대로

앞두고 인권복지위원회를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복지위원회 2개로 나눠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개로 나눌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 그리고 장애인권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성평등위원회까지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던 총학생회의 경험도 있고 또한 아까 인력이 부족한 인력이 과중하다 하셨는데 오히려 인력을 좀 더 충원함으로써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첫 번째로는 폐지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안 주신 장애인권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인권과 복지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위원회의 신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려면 다시 안전 상 정부터 추가적인 제안 설명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이 되어있어야 하고 우선은 지금은 말씀 주신 인권위원회와 복지위원회로 나누고 총 5개의 산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 산하위원회를 신설하는 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추가적인 산하위원회 신설 안전으로서 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의사 진행 발언이실까요?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의사 진행 발언 하고 싶은데요, 수정안이 발의되면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 대표자분들이 수정안 발의한 바에 대한 질의응답을 거쳐야 하고 그 이후에 채택된 뒤에 그다음에 수정 안전 의결이 상정이 되면 그 안전을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차례 수정안 발의가 있었는데 모두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장님 선에서 계속 수정안 발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것이 회의의 진행에 맞는 절차인지 궁금해서 의사 진행 발언하였습니다.

의장 류동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안, 지금 진행하는 과정은 수정안 발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자료 13 페이지에 보시면 제 15 조 2 항에서 수정안 상정 이후에 토의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안전은 지금 해당 말씀 내용은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이고 수정안 발의 과정에서 의결을 통해 채택이 됐을 시 수정안 안전으로 상정이 되어서 추가적인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동일 안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은 1 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이고 나온 수정안에 대한 채택이 된다면 수정안 안전 상정으로서 추가적인 이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정안 발의해 주신 분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답변이 되셨을까요?

사회자 서예나: 의사진행 발언이실까요. 수정안 제안이실까요?

국제물류학과 부학생회장 박두진: 안녕하세요, 국제물류학과 부학생회장 박두진입니다. 현재 일부 총학생회 산하위원회라는 표현이 위에 있는 안전 설명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를 장애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복지위원회 업무 수행과 명칭 변경을 인정한다고 명시한다고 수정 제안 드립니다.

사회자 서예나: 지금 발의자께서는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대신 장애인권위원회와 인권복지위원회라는 명칭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의장 류동현: 혹시 두 번째 수정안 발의하신 분은 수정안 답변이 되셨으면 철회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인가요?

정치국제학과 3학년 대표 홍성현: 발의안 안건이 수정안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철회하지 않아도 될까요?

의장 류동현: 그 첫 번째 수정안 발의하신 분은 새로운 안건으로서 선정하시고 지금 수정안 발의하신 것을 철회하실지 의사를 좀 여쭙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혹시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 서예나: 의사진행 발언이실까요?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제 수정안이 만약에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왜냐하면 해당 안건이 새로운 안건으로써 발의가 되는지, 그게 이번 안건을 의결을 하고 진행하면 새로운 안건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안건에 대해서 앞서서 의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장 류동현: 앞서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그럼 철회하고 새로 나온 것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수정안 1번이 삭제되었네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러면은 추가적인 논의에 앞서서 새로운 안건 상정을 제안해주신 건데요.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페이지 그대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안건 상정으로서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관에 관한 사안의 결정을 유보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및 장애 당사자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재논의한다라는 안건 상정에 대해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제 10 조에 의거하여 추가 상정에 대한 추가 상정 발의에 대한 채택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순서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추가 상정 발의에 대한 채택 의결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참석 인원과 찬성 반대 기권의 수가 서로 맞지 않아 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표를 높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의결 진행)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282 명 중 찬성 101 명 반대 104 명 기권 77 명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수정안 1 번과 수정안 2 번 채택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채택되는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 그리고 의결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 번과 2 번 채택에 대해서 의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수정안 1 번과 2 번 그리고 기권에 대한 채택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 번 ‘장애인권위원회를 유지하고 인권복지위원회를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복지위원회로 분리한다’ 라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안 2 번 ‘장애인권위원회와 인권복지위원회의 업무조정과 명칭 변경을 인정한다’ 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278 명 중 수정안 1-51 표, 수정안 2-83 표, 기권 144 표로 어떤 수정안도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원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조정 건에 대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장애인권위원회의 어떤 사업이나 정체성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기존 소외되는 인권들과 기존 기구와 복지사업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최대의 개편을 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900 명의 학생들이 동의한 취지와 그리고 지금 장애학생 인권위원회 폐지 반대하는 그런 학생들의 입장들을 모두 수렴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총학생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과 그에 따른 명칭 변경을 인정한다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기권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285 명 중 찬성 181 명 반대 57 명 기권 47 명으로 해당 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 안건인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총학생회 회칙 제 54 조(위치) 2 항 ‘각 위원회는 자치활동을 위해서 별도의 규정과 조직을 가지며, 이는 전학대회 이상 의결단위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전체학생대표자들의 동의를 받아 개편된 산하위원회 업무 및 방향성에 맞게 운영 규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래 운영 규정은 개편된 업무 및 방향성에 맞게 총학생회 각 산하위원회(인권복지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 내부 회의를 통해 마련된 운영 규정이며, 65대 중앙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피드백 후 승인된 바 있습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4 학년 대표 이성화: 에너지시스템공학부 4 학년 대표 이성화입니다. 방금 진행한 수정안 상정과 의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전학대회 시행 세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지적입니다. 질의 답변은 5 분 이내에 3 인 이하의 대표적으로 발언할 수 있으며 추가 질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한번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일인이 동일안에 대한 질의가 2 번 이상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은 지속적으로 답변을 진행하셨습니다. 수정안 상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단위 대표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수정안 상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의결 안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 상정에 대한 발언만 가능할 뿐 이외의 질의답변은 불가능하며 모두 질의답변 시간 또는 찬반토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학생자치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이곳은 모든 단위의 대표자가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회의 시행 세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찬반 토론 수정안 제출 등 많은 발언 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표자 분들에게서는 세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길 바라며 의장과 진행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총학생회장단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규정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지금 개회를 선언한 지 3 시간 가까이 된 상황에서 휴계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류동현 :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수렴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좀 더 철저하게 시행 세칙에 준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결 안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금 휴계를 갖는 것보다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좀 하나 의결을 마치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 좀 다시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1번 의결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이번 안건 진행하고 의결이 완료되는 대로 휴계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 해당 내용에 대해 1분간 심의 갖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입니다.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에 대해서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복지위원회 운영규정을 새롭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원래 위원회 취지에서 그대로 이어나가고 그리고 개편이 폐지 및 신설이 아니라 개편이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개정하여서 가져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권위원회 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 운영 규정이 존재하고 인권복지위원회 운영 규정에 존재하며 모든 위원회 운영 규정이 존재하는데 혹시 학생복지위원회와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규정을 새롭게 작성하면서 논의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의장 류동현 : 방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습니다. 새로운 기구의 신설이나 폐지로 인한 체제 개편이 아니고 업무조정으로 인한 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기존 운영 계획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 방향성에 맞게 새로 개정을 했고 그 개정안이 운영 규정 지금 제시되어있는 운영 규정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류동현 : 추가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끝 쪽에 계신 분들부터 바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영상창작학부 영화전공 3학년 대표 김현민: 다름이 아니라 10 페이지에서 13 페이지까지 모두 읽어보았는데 학생인권위원회는 기존 장애인권위원회를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로 개편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10 페이지부터 13 페이지 장인위에 대한 내용이 한 마디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운영될 학생인권위원회가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켜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개편 방향성에 맞게 포괄적인 인권을 다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그 제안 설명에도 있듯이 저희 총학생회 이제 앞으로 적용될 운영 규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학생회로서 저희 내부 내부회의를 통해서 마련된 운영 규정이기 때문에 장애 인권에 대한 보장은 확실히 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에 장애 학생 인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의견 수렴해서 반드시 제가 보장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 우측에 계신 분부터 진행하고 나머지 세 분 부여하는 것을 의결하고 발언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 2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장애인권위원회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새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장애인권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았을 때 장애인권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현재 학생인권위원회 운영규정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권위원회의 사업을 개편하여 학생 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다양한 인권을 다루시겠다는 의도를 앞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장애인권위원회 운영규정이 있는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 학습권은 기본권을 수호하는 등 목적과 의의를 반영하지 않은 협상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장 류동현 : 네 반영하지 않으려고 누락한 것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인권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규정이 마련된 것 같은데 해당 운영규정이 승인이 나서 이제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부결 상관없이 해당 의미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분 계시나요? 3인 발언이 모두 초과 돼서 추가적인 의견 진행하고서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밖에 안 되셔서 두 분에 대한 의견을 진행하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 2인에게 추가 질의를 받는 것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2인에게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위 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인원 253명 중 찬성 147표, 반대 42표, 기권 64표 과반을 넘었기에 해당 안전을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2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철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김민지: 총학생회장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해당 산하위원회 운영 규정은 총학생회 내부에서만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산하위원회로의 조정하고 질의에서 답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총학생회장님께서서는 학생인권위원회 조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위원회로의 장애인권위원회의 조정 시 장애학생은 물론 협회 대표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총학생회 내부의 소수 인원으로만 결정된 운영 규정을 전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안전을 철회하고 운영 규정 제작 TF를 만든 뒤 추후 규정을 제시해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장 류동현 : 그 우선은 총학생회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다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이제 산하위원회에 그 운영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우선은 내부 이제 운영할 위원들의 의견에 맞게 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운영 규정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해당 운영 규정에 대해서 피드백을 거친 후에 안전으로서 선정된 가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실까요? 동일 안전에 대해서 한 번의 기회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당 전학대회 안전으로서 이제 통과되어야 한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그 통과되기 위한 어떤 초석을 가져왔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논의 없이 안전을 상정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런 논의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피드백을 주고 안전 상정에 대한 안전 의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중운위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중운위 승인을 통해서 해당 안전으로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간호학과 C 반 부비상대책위원장 신용섭: 안녕하십니까, 간호대학 C 반 부비대위원장 신용섭입니다. 우선 학생인권위원회 운영규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애인권위원회를 계승한다는 말이 없어서 이게 장애인권위원회의 취지를 계승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장애학우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성문화를 해서 성문화를 해 놔야 이후에 있을 학생회에서도 이거를 해석을 해서 장애학생 인권들을 조금 잘 챙기지 않을 줄 하는 마음에서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성문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폐지나 신설이 아니라 이거 그냥 계승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학생인권엔 장애인권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기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이동권과 교육권에 대한 보장은 없으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인권이라는 것 자체에 장애학생들의 이동권과 교육권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학생인권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해서 여러가지 의제를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이슈가 됐을 때 그러면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정을 마련해야 하느냐라는 우려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것이지 장애 인권이 퇴색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애인권위원장 박세욱 :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권위원회가 폐지된다고 했다면 절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권위원회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개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 말씀해 주신 장애 인권에 대한 내용이 성문화 되어 있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일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향후 어떠한 인권에 대한 의제가 발생했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걸 성문화되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성문화되지 않은 인권들에 대한 소외나 차별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해당 내용을 성문화하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대표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그 점 우리 위원회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계승된 배경에 대해서 전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 찬반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길 바랍니다. 찬반토론 진행 희망자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류동현: 찬반토론 반대 입장으로 비표를 드신 분 외에 찬성측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찬반토론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4학년 대표 김재석: 공공인재학부 4학년 대표 김재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결해야 되는 안건이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업무조정에 따른 각 위원회 운영규정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대로 가결이 되면은 지금 여기 제시된 가안이라고 하신 운영 규정 자체가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이제 운영 규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운영 규정을 인정한다를 운영규정의 변경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네 두 번째 수정안 발의하실 분 계신가요?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입니다. 대표자분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장애인권위원회의 기존 업무 운영 규정을 학생인권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장애인권위원회 규정에는 장애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근거와 그 취지와 배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가안대로 학생인권위원회 그냥 규정이 변경이 된다면 그 취지가 정확하게 담기지 않을 것 같아서요. 수정안을 잠시만요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업무조정에 따른 각 위원회 운영규정을 인정한다. 단 학생인권위원회 운영규정의 경우 부칙으로 장애인권위원회 운영 규정을 포함한다라고 수정안 발의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 다시 한 번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단,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규정에 부칙에 장애인권위원회 운영규정을 포함한다.

의장 류동현 :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인권위원회로 같은 단체에서 업무 성격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권위원회 규정이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부결이 된다면 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운영 규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더 다듬는 식으로 임기 중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 이어서 수정안 1번과 2번 채택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고 있어 다음 순서 맞게 진행하도록 채택에 대한 의결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1번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의 업무조정에 따른 각 위원회 운영 규정의 변경을 인정한다’에 찬성하시는 대표자들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2번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의 업무조정에 따른 각 위원회 운영규정

을 인정한다. 단, 학생인권위원회 운영규정 부칙에 장애인권위원회 운영 규정을 포함한다'에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위 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입장 퇴장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집계 결과 알려드립니다. 참석 인원 245명 중 수정안 1번 11명, 수정안 2번 79명, 기권 155명으로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원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총학생회 일부 산하 위원회의 업무조정에 따른 각 위원회 운영규정을 인정한다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위 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247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1명, 기권 49명으로 해당 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 네 말씀드린 대로 나-의결 안전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시간 10시 41분부터 15분간 휴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외출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나가시면서 비표를 바깥쪽 스태프들에게 반납해주시면 되고 퇴장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안쪽 스태프 분들께 사유를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 대표자들께서는 퇴장하시거나 잠시 나가실 때 스태프들에게 비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대표자분들께서는 자리에 다시 앉아 정숙을 유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휴게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재적대표자 392명 중 참석대표자 206명으로 개회정족수 196명을 넘어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자료집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자 및 용어 수정, 근거 조항 명시 등 회칙 내 오류 사항을 바로잡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학생회칙과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총학생회 회칙 개정 내 첫 번째 의결 안전으로 제3조, 4조 일부 개정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자료집 27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 3 조는 본회 회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 3 조 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경우, ‘회원’ 이 아닌 ‘회원의 권리’ 에 대한 내용이므로 회원의 권리에 관한 조항인 제 4 조 1 항으로 이동하여 각 조항명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으로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참여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하는 원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대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인원수 초과로 재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결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옳은 집계를 위해 비표를 높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줄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여인원 213 명 중 찬성 213 표, 반대 0 표, 기권 0 표로 해당 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자 서예나: 다음으로 총학생회 회칙 개정 중 2 번째 의결 안건입니다. 제 14 조의 2 일부 개정안입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제 14 조의 2 6 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탄핵심판의 대상자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주어를 명확하게 바로잡고자 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학과 2 학년 대표 방지운: 교육학과 2 학년 대표 방지운입니다. 지금 의결을 진행하려는 제 14 조의 2 부터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48, 49 쪽에 남아있는 띄어쓰기 붙여쓰기 개정까지 쪽 보시면 대부분이 자잘한 오타자 수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 드립니다.

사회자 서예나: 대표자께서 발의하신 것은 총학생회 회칙 개정 내 2 번부터 20 번까지를 모두 묶어서 진행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의장 류동현: 지금 의결안건 자체를 보시면 다-의결안건 자체를 한 번에 의결하고자 의견주신 게 맞으신가요?

의장 류동현: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해당 내용 그 첫 번째 안건부터 40 페이지에 있는 20 개 안건을 모두 검토하실 시간을 부여 드리고 각각의 안건이 아닌 다-의결 안건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의결에서 가결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우선 검토하실 시간 5 분 정도 부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을 일괄적으로 의결한다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가결될 시 일괄 진행하도록 하나의 안건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개정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의결을 진행한다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희망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간호학과 C 반 비상대책위원장 최윤경: 간호대학 간호학과 C 반 비상대책위원장 최윤경입니다. 일괄 개정 전에 그 일괄 진행함에 있어서 수정안이 발의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안건만 빼어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의장 류동현: 네, 괜찮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의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의결한다에 찬성하시는 대표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류동현: 그 의사 진행 발언은 의결 과정에서는 의결 이후에 끝나면 제가 발언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결 이후 발언해주세요.

간호학과 C 반 비상대책위원장 최윤경: 간호학과 C 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정안을 먼저 말씀을 일괄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그냥 일괄 투표를 하고 수정안을 받으시는 것 어떠한지 발언합니다.

의장 류동현: 의결 안건에서 수정안 발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분이신가요? 세 분 네 분 맞으실까요? 그 내부 먼저 그 안건부터 다루고서 그 외의 것들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린 말씀 주신 거죠?

간호학과 C 반 비상대책위원장 최윤경: 네, 맞습니다.

의장 류동현: 좌측편에 계시는 분부터 그러면 수정안 발의하실 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문학과 학생회장 이환희: 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 프랑스어문학 전공 학생회장 이환희입니다. 그 8 번째, 이 같은 경우 따로하고 의결 한 번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의장 류동현: 네, 그러면은 8 번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집 36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 집행국원과 산하위원회 위원 임명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나 인준을 받지 않으므로 제 30 조 4 항과 8 항 내 집행국원과 산하위원회 위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 30 조 9 항으로 추가하여 집행국원과 산하위원회 위원 임명 및 해임권을 총학생회장의 임무 및 권한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심리학과 3 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 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입니다. 안건 설명에서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나 인준을 받지 않으므로 집행부가 산하위원회에 임명 및 파면에 대해서, 임명권 및 해임권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이런 구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혹시 단순히 총학생회장만의 총학생회장에게 감독으로 임명해 해임권을 부여한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장 류동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30 조 자체가 총학생회장의 임무 및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4 항에 총학생회장은 집행부에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산하위원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 및 파면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사회학과 2 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운: 사회학과 2 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운입니다. 제 30 조 원안에서 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산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을 지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기존의 조항이 중앙집행위원회와 산하위원회 위원에 대한 일부 해임권이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 각자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가지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집행위원회와 함께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기존에 있던 현행 회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장 류동현: 네, 회칙상 그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산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이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이와 달리 지금 진행되던 방식은 중앙운영위원회에 별도적인 동의를 받아서 위원을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오류를 해소하고자 내용들을 따로 빼서 임명해 총학생회장이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 다라는 조항으로 바꿨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걸까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간호학과 C 반 부비상대책위원장 신용섭: 자료집 31 페이지에 4 번째 16 조, 36 조 중앙운영위원회로 용어 통일을 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있는데 36 조에 단과대 51 번을 보시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총,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단 옆에 나와있는데 그 단과대가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 안건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동현: 일단 지금 8 번 안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8 번 안건이 끝난 이후에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3 인 발언권을 모두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으로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표들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습니다. 천만 토론 참여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입니다. 기존 상정된 개정안에서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중앙집행위원회 국원과 산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지닌다. 로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지닌다를 가진다로 변경하겠습니다.

공공인재학부 4학년 대표 김재석: 질의시간에 했어야 하는지 수정안 제출에 했어야 할지 애매했어서 질의 드립니다. 9항에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원과 산하위원회 위원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진다 부분이 현재는 중앙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지 않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7조 제9항에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집행국장과 산하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탄핵에 대한 동의 및 탄핵 발의, 소환권이라고 되어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에게 권한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30조 제4,8항에서는 동의를 받게 되어있어 두 항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의 회칙을 유지하고 37조 제9항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운영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류동현: 제37조 중앙운영위원회 업무 및 권한 부분에서는 국원과 위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회칙이 개정된다면 37조 업무 및 권한 부분에 추가하는 거 맞으실까요?

공공인재학부 4학년 대표 김재석: 총학생회에서 제시한 개정안 하는 것 대신에 기존의 회칙은 유지하고 37조 9항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의장 류동현: 그러면 새로운 안건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을 하던지, 해당 안건 이후에 중운위 논의를 통해 2학기 때 해당 안건으로 상정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는게 나으실까요?

공공인재학부 4학년 대표 김재석: 지금 여기서 개정안 가결이 되면 더 이상 충돌은 없어져서 새롭게 안건을 제시하는 건은 옳지 않아 보이고요. 집행국원에 대한 것은 중운위에 동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동현: 여기서 어떻게 표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가결이 된다면 2 학기 다음 전학대회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권한과 임명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 번만 나온 것으로 봐도 될까요?

사회자 서예나: 수정안 채택을 위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 1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중앙집행위원회 국원과 산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진다’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1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권하시는 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여인원 221 명 중 찬성 135 명 반대 33 표, 기권 53 표로 수정안 1이 채택되었음을 알립니다. 수정안 1이 채택됨에 따라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보안학과 부학생회장 김도환: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 부학생회장 김도환이구요. 수정안에서 중운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임명권이나 해임권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 누구도 임명권이나 해임권이 없어질 수 있는데, 수정안 발의자님께 정확한 의도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과 3 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구성원을 보고하고 물론 의결을 거치지는 않지만 관례적으로 보고합니다. 각 위원회별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단의 상의와 함께 임명 및 해임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원안을 보면 총학생회장이 단독으로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지게 되어 위의 수정안을 발의했고요,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총학생회장님께서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기존 회칙도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국장의 위임 및 파면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추가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회칙상 중앙운영위원회 업무 및 권한에서 국원과 산하위원회에 대한 임명권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에 빠진 상태에서 현재와 같이 계속... 그러니까 해당 수정안이 이제 가결이 돼서 진행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것처럼 각 위원장 각 국장들과 각 산하위원장이 인준 시에 어떠한 사업을 할건지에 대한 보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인준을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진행해오던 방식인데, 지금 수정안이 만약에 가결된다면 중앙집행위원회 국원과 산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보고를 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답변 드리자면 제 7 장 중앙집행위원회에 41 조 2 항으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각 집행국장은 총학생회장에 임명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명과 인준은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 및 국원과 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지게 된다면, 단순히 기존처럼 국장급 위원장이 나와서 사업 보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인준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

통일공대 부학생회장 곽병영: 통일공대 부학생회장 곽병영입니다. 발의해주신 수정안에 따르면 국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총학생회칙 제 6 장 37 조를 보면 중앙운영위원회에는 따로 국장 그리고 산하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파면에 대한 동의 및 탄핵 발의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따로 국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쭙보고 싶은 건 나중에 이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발의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네 대표자분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해당 안건 채택 후 가결이 된다면 추후 중운위 권한에서 추가 안건 상정할 의사가 있고요, 다만 앞서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해당 안건이 가결된다면 2 학기에 중앙운영위원회 관한 부분에 개정안을 상정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류동현: 네 해당 수정안이 가결된다면 2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 상정으로써 중앙운영위원회 내부 논의를 1 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의 질의가 끝나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다음으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찬반토론 참여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수정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중앙집행위원회 부관과 산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진다’에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결과 집계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참석

인원 217명 중 찬성 57명 반대 95명 기권 65명으로, 해당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 8번째 제 30조 개정의 건 원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님께서서는 대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동현: 의사진행 발언이실까요?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정주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정주은입니다. 제가 아까 수정안 의결을 진행할 때 손을 들지 못했는데 부결이 진행되어 당황스러운데요, 이 상황에 대해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석대표자 수와 의결 수가 맞지 않는 상황이거나 맞지만 아예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 시에 집중해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의결에 대해 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수정안에 대한 재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중앙집행위원회 부관과 산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진다’에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결과 집계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참석 인원 219명 중 찬성 49명 반대 108명 기권 62명으로, 해당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216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9명 기권 21명으로 해당 안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다음으로 다-의결 안전에서 아까 추가적으로 바로 수정안 발의해 주겠다는 것 진행하겠습니다.

간호학과 C 반 비상대책위원장 최윤경: 간호대학 간호학과 C 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29 페이지 3 번 안전에 대해 질의 먼저 드려도 괜찮을까요?

의장 류동현: 3 번 안전이시면 제가 제안 설명 먼저 드리고 질의 답변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자분들은 자료 29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6 조 2 항, 제 24 조 2 항 /3 항, 제 36 조 1 항, 제 59 조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과대/단대’ 는 조항 내 각 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과대학입니다. 명칭 통일을 위해 각 조항 내 ‘단과대/단대’ 에서 제 8 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과대학’ 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질의 및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간호학과 C 반 비상대책위원장 최윤경: 네, 간호대학 간호학과 C 반 비대위원장 최유경입니다. 48 조를 보시면 안전 상정이 되지 않은 단과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 확인하지 못한 단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회칙의 통일성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단과대학 또는 반대라는 단어를 단과대학으로 일괄 개정하는 형식 개정으로 수정안 발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해당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48 조는 제 8 장에 준하는 조항으로 제 47 조에서 단과대학 이하 단과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8 조는 단과대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비표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희망하시는 대표들께서는 대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입니다. 해당 안전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이 의장님의 얘기에 따라 별로 이상이 없는 안전인 걸로 아까 대표자분의 말씀대로 해당 안전이 크게 변동을 주지 않고 단순 표현 때문에 해당 안전을 별도로 의결을 하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조금 의결을 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아 의사 진행 발언 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희망하시는 분께서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답변으로 해석을 되었으면 일괄 묶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결 안건 내에서 추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대표자분 계실까요. 네 없으신 걸로 확인이 돼서 그렇다면은 지금 1번 안건과 8번 안건이 의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안건을 제외한 다-의결 안건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다음 의결 안건입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 개정 의결 내 첫 번째 안건과 8번째 안건을 제외한 18개의 안건에 대해 묶어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칙 개정 회칙 개정에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대표님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204명 중 찬성 196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음 안건으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 주시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융합공학부 3학년 대표 오민지: 융합공학부 3학년 대표 오민지입니다. 저는 의결 안건 선거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결 안건 다와 같이 일괄 의결을 진행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의결안건 다 진행 시에 일괄 의결을 진행한다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기 전에 그 후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받았고 또한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번호 순서가 섞이는 등 회의 순서에 어긋나는 상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일괄적으로 의결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제안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괄 의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먼저 진행하고 두 번째로 의장이 1번에서 9번 수정안 여부에 대해서 순서대로 물으며 묻는 도중 수정안이 있는 의결건에 대해서 멈추고 제안 설명과 수정안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이를 반영하여 의결 안건과 1번에서 9번을 해당 방식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사회자 서예나: 의사진행 발언이실까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방금 했던 다 일괄 의결 안건에 대해서 의결 안건을 다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먼저 그 후에 다 일괄 의결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의장 류동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일괄적으로 의결하겠다고 하였을 때 일괄적으로 의견이 나왔으므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결을 진행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의결이 가결이 되었다면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것이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 지금 현재 과정으로서는 그 과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의장 류동현: 지금 현재 과정으로서는 그 과정이 빠진 것 같을 때 일괄 의결에 대한 동의 이후에 제가 하나씩 세부 수정안을 발의하실 거에 대해서 질문 했었던 것 같거든요.

사회자 서예나: 의장님,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의사 진행 말씀해 주신 바 같이 일괄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먼저 의결을 진행한 후에 일괄 의결 진행이 맞습니다.

의장 류동현: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 의결안건 다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대로 진행되어야 맞습니다.

의장 류동현: 집계하고 계시죠? 의결 안건 다를 일괄적으로 의결한다에 대한 의결을 저희가 진행하고서 그 이후에 세부 각 안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를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 선행하기에 앞서서 수정안 발의를 한 것일까요.

사회자 서예나: 다 의결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다 의결 안건을 1번과 8번 의결 안건을 제외하고 18개의 의결 안건을 하나로 묶어서 의결을 진행한다에 대한 의결을 먼저 진행한 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진행하면 됩니다.

의장 류동현: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지는 이해를 했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진행하면서는 일괄 의결한다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서 세부 수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의결하겠다고에 대한 의결이 지

금 빠져 있다고 하니 우선 지금 사전적으로 먼저 앞서서 의결이 됐어야 할 의결 안건 다룰 일괄 의결한다에 대한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지금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회의에서 일단 결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그 회의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의거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번외로 해당 부분을 인정하는 의결을 하고 문제가 없이 가결된다면 이어서 라 의결 안건을 진행하고 라 의결을 진행할 때는 라 의결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결을 제가 꼭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순서가 뒤 바뀌면서 저도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을 그냥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라 부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 개정 중 이미 의결이 된 1안과 8안을 제외하고 18번째를 묶어서 의결한다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류동현: 죄송합니다. 다시 안건 다의 의결 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회의 전에 이미 지나간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상정할 수 없지만 해당 부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 순서인 안건에 맞게 의결 안건 일괄 의결한다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혹시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지나쳤던 원래 첫 번째 의결해야 되는 순서를 다시 재의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1번과 8번 안건을 제외하고 일괄 의결한다에 대한 것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전의 과정이었던 의결 안건 다룰 일괄 의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결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건명은 의결 안건 다룰 일괄 의결하는 데에 동의한다라고 해서 해당 안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 개정 18개를 일괄 의결하는 것에 동의한다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님께서 답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류동현: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8개의 의결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다루지 않고 제일 첫 번째 했어야 되는 과정이 이다 의결 안건 자체를 한 번에 하겠다라는 동의에 대한 의결을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18개의 안건을 의결하겠다 가 아니라 의결 안건 다룰 일괄 의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안건 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 2 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윤: 총학생회장님께서 주신 내용에 동의하는데요. 18 개 안건을 한 번에 일괄 의결하는 것에 동의에 대한 의견을 진행한 다음에 그 의결이 사실은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선행 없이 의결 대한 순서로 진행됐기 때문에 앞서서 수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났으므로 생략하는 대신에 동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 후에 18 개 의결 안건에 대한 의결을 다시 진행해도 이게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실까요?

의장 류동현: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고 시행세칙을 보시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회의에서 결정된 의안을 그 회의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18 개의 안건 상정에 안건 의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다시 상정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과정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없었던 과정을 다시 진행하는 거라서 18 개에 대한 의결은 이미 의결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학과 2 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선임되는 의결이 없으면 뒤에 의결을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표자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류동현: 의사진행 발언하고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비표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공공인재학부 4 학년 대표 김재석: 공공인재학부 4 학년대표 김재석입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바가 실질적으로는 추임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원래 있어야하는 절차를 저희가 생략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용인한다. 식의 안전을 상정하면 괜찮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 제안해주신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의장 류동현: 그러면 같은 의미이면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제가 진행하지 않았던 순서 하나만 진행하고 다음 의결 안건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다 의결 안건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결을 하고 다음에 이제 라 안건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공인재학부 4 학년 대표 김재석: 네,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동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의장으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명을 의결 안건 다를 일괄 의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결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대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대표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길 바랍니다. 해당 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

표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210 명 중 찬성 205 명 반대 0 명 기권 5 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자분들께서는 자료집 50 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의사 진행 발언 해주신 대표자분의 의견을 수렴 해서 진행할 건데 그 이전에 의결 안건 라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50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자, 띄어쓰기 교정을 비롯하여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내 규정된 줄임말을 현 세칙 내에도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장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바로잡아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시간 5 분 이후에 일괄 의결에 대한 동의 의결을 진행하고 그 이후 순서대로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인원을 참여 대표자 인원을 다시 취합하는 중이긴 한데 지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개회 정족수를 기준에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재적 대표자의 과반 숫자인 196 명을 넘지 못할 시에는 회의가 중단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여 드린 시간이 모두 지나서 일괄 의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가결된다면 세부 순서대로 수정안 발의하실지 묻고 제가 답변드리는 시간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건명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의결 안건 라 를 일괄 의결하는 것에 동의한다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결 안건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203 명 중 찬성 200 명 반대 1 명 기권 2 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일괄 의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9 개의 안건 중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실 대표자분이 있으시면 순서대로 제가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결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하신 분 계신가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결 안건 관련해서도 수정안 발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 의결 안건 관련해서 수정안 발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의결 안건 관련해서 수정안 발의하실 대표자분 계신가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7 번째 의결 안건 관련해서 수정안 발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여덟 번째 의결 안건 관련해서

수정안 발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9 번째 의결 안건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은 ‘조항호목’의 조문 체계를 따르지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회칙과 세칙의 조문 체계를 통일하고자 기존 세칙에 적용되던 조문 체계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과 같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에 대표자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입니다. 해당 안건은 제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총학생회장님께서 질문에 해당 수정안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반영을 하신 것인데, 제가 수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해당 부분 수정안으로 상정을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그 수정안도 다른 안건과 함께 의결하는 방향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혹시 괜찮으시다면 수정안으로서 발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적해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선거 시행 규칙을 공포할 때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공포하는 것은 어떨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좋습니다.

의장 류동현: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보이시는 부분은 말씀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공포할 때 정확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지금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자료집 50 페이지에 제 2 조 여기에 보시면 가나다로 되어 있는 것을 1 2 3 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어요. 다가 3 으로 기호가 변경이 되지 않아서 일단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2 페이지에 제 12 조에 제 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보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 12 조 4 항 1 호의 규정 기호가 아니라 1 괄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1. 괄호로 변경되어 합니다. 그리고 94 페이지 제 23 조 3 항에도 호 기호가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1.2.3.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5 페이지 제 26 조 4 항에도 호 기호가 사용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8 페이지에 58 59 페이지에 제 6 장 1 절 2 절 제 7 장 1 절에도 1 절이 아닌 제 1 절 로 제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 6 장 1 절, 2 절 제 7 장 1 절, 그리고 58 페이지 제 44 조 4 항에도 호 기호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0 페이지에 제 8 장 1 절도 제 1 절로 수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 1 절 확인되었을까요. 네, 그리고 제 56 조

3 항에도 1 호 2 호 3 호 4 호 기호가 사용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 페이지에 65 조랑 66 조가 각각 제 65 조 제 66 조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장 류동현: 섬세한 피드백 감사합니다. 제가 반영해서 선거시행세칙 개정할 때 공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회장님께 추가 말씀 제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과 함께, 해당 수정안과 함께 일괄적으로 공포한다는 의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류동현: 지금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별다른 해당 조문 체계 변경 건에 대해서 방금 사회과학대학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저희가 일괄 수정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 번째 의결 안건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해소가 되었으며 추가적인 수정안 발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의결 안건 (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의결 안건 (라)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1 번부터 9 번까지 일괄 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석 인원과 찬성 반대 기권의 수가 맞지 않는 관계로 재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에 대해 동의하시는 투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집계를 위해 목표를 높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206 명 중 찬성 206 명 반대 0 명 기권 0 명으로 해당 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의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자께서는 자료집 75 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학생이 사 용 내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사무국장께서는 의장 옆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의결을 진행해야 하는 안전에 대해서는 끝났지만 심의 안전과 보고 안전이 남아있고 보고 안전이나 심의 안전을 진행하면서도 발언자 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언권을 부여하려면 문제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206 명의 대표자가 자리에 계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분간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회학과 2 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윤: 사회학과 2 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윤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 회의에 많은 대표자 분들이 피곤하실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뒤에 보고 순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심의 안전 뒤에 휴게 시간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류동현: 해당 의견 공감을 하나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휴게 시간 이후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가 좀 우려스러워서 우선은 해당 부분은 심의 안전 진행 이후에 한 번 더 상황을 보고 대표자분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5 페이지 부터 80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예산안 확정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64 대 중앙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금액은 1592 만 4 천 209 원입니다. 지난 12 월 1 일 임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산하위원회 사업에 사용한 지출 내역입니다. 또한 지출 내역은 내역 및 영수증 정리를 위해 안전 상정 마감일과 자료 지급 주문 일자인 4 월 1 일 하루 전인 3 월 31 일까지 내역을 심의받는 것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용 내역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자분들의 질의에 대해 회계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고 의장께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3 학년 대표 김호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3 학년 대표 김호준입니다. 회계 내역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단과대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앞서 이제 대상 되었던 경영

경제대학 사회과학대학과 이러한 대학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질의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 배분 관련해서는 학생회 계좌가 1일 이체 금액 한도가 1천만 원이어서 여러 건을 보내다 보니 3월 31일 날은 총 4개 단위에 보내드렸고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단위에 지금 배부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대표자 계실까요?

예술대학 학생회장 정은효: 안녕하세요 예술대학 학생회장 정은효입니다. 76 페이지 31번 항목에 배너 현수막 제작 안내 배너 2만 5천원짜리 4개, 현수막 3만 5천원짜리 함께 했을 때 총 13만 5천원인데 금액이 14만 85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배송비 항목이나 추가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회계사무국장 박고은: 회계사무국장 박고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부 내역에는 총 13만 5천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세액이 각각 총 합쳐서 13500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13만 5천원과 세액 13500원이 합쳐서 14만 8500원이 결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품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입니다. 77 페이지에 39번 항목을 보면 단가가 200원을 구매했을 때 금액은 총 12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출 금액은 14만 21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입니다.

회계사무국장 박고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표자분들께 단가를 좀 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무리인데요. 업소가 수량 600개의 단가 200원인 건 맞는데요. 여기에 15만원 이상의 15만원 미만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1만 2천원, 1만 2천 죄송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쳐져서 총 1만 3천 200원이 추가되고 여기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면 3100원이 할인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현재 발언 인원 3인을 초과하였습니다. 추가 질의를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합니다.

의장 류동현: 추가 질의하실 분이 두 분으로 확인이 돼서 두 분에 대한 추가 질의 부여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이어서 심의 안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분만 더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서예나: 추가 질의 받는 것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2인에 대해 추가 발언권을 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대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이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2명 기권 24명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2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아까 의결 때 안 보이셨던 한 번 하신 분 제외하고 두 분 먼저 발언을 하고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생회장 김건하: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생회장 김건하입니다. 52번 항목을 보면 쏘카 항목이 있는데, 쏘카를 빌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통일공대 2일차 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2일 차면 후발대 버스를 이용하면 되지 않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사회자 서예나: 77 페이지 52번 항목입니다.

의장 류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통일 공대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일공대를 제외한 모든 단위가 교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타지 방문이 필요하지는 않았고요. 통일공대에서 가는 날 저희가 통일공대를 포함해서 3개 단위로 교내에서 진행했던 상황이라서 버스 시간에는 조금 저희가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지금 20년도부터 새내기 새로 배움터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19년도에 어떻게 했었는지 선례를 찾아 보니 쏘카를 이용했던 그런 선례가 있어서 저희도 해당 내역으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인문대학 학생회장 도규호: 77 페이지 41 번 항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해당 항목을 보면 77,000 원이 결제되어 있고, 75,000 원 두 개가 결제되어 있습니다. 아마 두 번째가 10%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앞서서도 31 번 항목에서도 부가세 항목이 있어서 비고란에 세부항목을 기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부가세를 추가 기재하는 것이 학우분들의 그런 혼란이나 오해가 없으시다면 저희가 앞으로 회계 내역을 기재함에 있어서 비고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 번 항목도 아까 말씀해 주신 31 번 항목과 같은 업체로서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추후 발언하시다 그러면 추가 발언 의견에 대해서 의결 진행하고서 발언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분 맞으실까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높게 들어주시면 세 분으로 확인해서 추가적인 발언에 대해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3 명의 발언권 제공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3 인에게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석 인원과 찬성 반대 기권 숫자가 맞지 않는 관계로 재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에게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드실 때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안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인원 209 명 중 찬성 182 명 반대 10 명 기권 17 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안전이 가결됨에 따라 3 인에게 바로 발언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77 페이지에 41 번 항목을 보면 대여사업을 계산을 해보았을 때 117100 원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자료집과 중대중심 영수증에는 82900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출액과 회계내역 상의 금액이 동일해 보이나 단가가 잘못 되었거나 회계내역에 기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와 같이 회계 내역에 기재된 바와 조금 상이한 그런 지출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학생회비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투명한 회계 관리가 있어야 학생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부탁드립니다. 회계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사무국장 박고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1 번 항목에는 두 가지 품목이 단가가 잘못 계산되었는데요 첫 번째 항목인 아이폰 8 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7,900 원으로 내 물품을 구매한 것이 맞으나 그 다음 항목인 C 타입 고속 충전 케이블이 총액 51,300 원을 결제하였고 개별 단가를 계산하는 와중에 해당 금액을 잘못 나누어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해당 품목은 10,260 원이 맞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그것은 하셨던 것처럼 그 영수증 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저희 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제작 중에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반영해서 좀 더 수렴하고 투명한 회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언권 받으신 분들 계시죠.

학생대표자 2 인: 앞선 발언과 동일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다음으로 보고안건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안건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중앙집행위원장단 연대사업국 일상사업국 전략정책국 홍보소통국 회계사무국 순으로 진행되며 각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문화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순입니다. 먼저 중앙집행위원장단 업무보고를 위해 중앙집행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집행위원장 김창은: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 65 대 총학생회 그린의 중앙집행위원장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0 학번 김창은 전체학생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상 최고 집행기구로서, 모든 진행 사업을 기획, 검토 관리하며 총학생회가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고,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집행하여 학우분들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 월 6 일 2023-1 학기 개강인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1 관 영신관 앞에 부스를 설치하여 국/위원회별 콘텐츠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개강인사 선물을 배부하여 학우분들의 개강을 축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국/위원회의 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한 설명과 각종 퀴즈, 미니게임을 함께 진행하여 단순 배부 형식이 아닌 학우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리함은 대면 행사 진행 시 학우분들의 생생한 피드백과 현장 의견을 받기 위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학기 기말고사 야식 판매사업과 3월 초 진행한 학교 점퍼 공동구매 시착회에 오프라인 소리함을 배치하여, 학우분들이 주신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추후 사업에 반영하여 학우분들께서 만족도 높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소리함을 통해 전달된 학우분들의 의견은 내부 논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추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사와 총학생회 소식이 담긴 월별 사업 달력, 지난 총학생회의 활동, 제휴,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과 회계 내역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는 월별 카드뉴스를 매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1분기 동안 총학생회 ‘그린’이 진행하였던 사업들을 교육 소통 복지 권리 사회 연대 환경개선 분야 총 6개로 분류하여 해당 사업의 진행과정, 추후 계획 등을 학우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활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중앙집행위원장단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이 캠퍼스의 문화 행사를 누리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도록 하고자 월별 문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만우절 기념 3월 문화콘텐츠 April 푸양 ‘s Day 를 107관 앞에서 진행하였으며 학우분들이 다양한 추억의 게임과 포토부스 이벤트를 즐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후 4월 10일에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문화콘텐츠 ‘그린데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매월 문화콘텐츠를 통해 학우분들께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단의 진행 예정 사업으로는 중앙대학교-두산베어스 응원전 ‘위닝데이’가 있습니다. 1학기 중으로 위닝데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와 논의를 마친 상태이며, 학우분들에게 경기 티켓과 간식, 응원도구를 제공하여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집행위원장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중앙집행위원장단의 보고안전에 대해 질의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서예나: 질의가 없는 관계로 중앙집행위원장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자치국 보고를 위해 교육자치국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치국장 정유미: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 65 대 총학생회 그린의 교육자치국장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 21 학번 정유미, 전체학생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교육자치국은 학우분들이 올바른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학사,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합니다. 교육자치국 업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학사정기협의체입니다. 3 월 29 일 개최된 1 차 학사정기협의체, 이하 열린학사회의에서는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대표자 및 실무진들이 참여해 주셨으며, D 학점 의무부과제 폐지, 예비군 학습권 보장, 복수전공 이수학점 축소, 성적 이의제기 횟수 제한 확대, 포탈 내 학기별 석차 조회, 포탈 내 졸업이수요건 업로드 총 6 개의 안전에 대해 학교 본부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D 학점 의무부과제 폐지의 경우 당장의 폐지 혹은 완화는 어려우며 추후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 학습권 보장의 경우 학교 본부 측에서 예비군 연대에 전달하여 출석 및 강의자료 공유와 관련해서 교수님들께 지속적으로 안내 및 요청드리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복수전공 이수학점 축소의 경우 복수전공 학점 축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졸업이수학점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 본부 측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합의된 내용은 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성적 이의제기 횟수 제한 확대와 관련하여 본부 측에서는 현행 방식 유지를 주장했으며, 포탈 내 학기별 석차 조회와 졸업이수요건 업로드의 경우 시스템 및 행정적인 방면에서 고려 예정입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필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추후 이루어질 학사정기협의체를 통하여 후속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23 학년도 1 학기 전공 및 교양 과목 강의계획서 바로잡기입니다. 학우분들의 더 나은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공 및 교양 과목 개설 강좌 강의계획서 중 미작성 혹은 내용 부실 강의계획서에 대한 신고창구 구글폼을 운영하고,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총 2 회에 걸쳐 강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 전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권 및 교육, 학사제도 관련 설문조사 진행입니다. 학습권 보장 여부 및 학사제도와 관련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교 본부에 전달하고자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예비군 학습권 불편 사례 조사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 의견 수렴 설문조사>와 <다전공 이수 학점 및 성적 이의신청 횟수 제한 관련 학생 의견 수렴 설문조사> 총 2 건의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 프로그램 제휴 확대입니다. 학우분들이 중앙대학교 학생으로서 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제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교보문고와 조이랜드 총 2개 업체와 계약체결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우분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3월 6일 진행된 개강인사에서 교육 프로그램 제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중앙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터디 카페 및 타 교육업체와의 제휴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을 위한 카드뉴스 배포입니다. 학우분들께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협업 공유 공간 Agora Zone 조성 및 오픈 안내>, <2023 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중앙도서관 열람실 이용방법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자치국은 학우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 보장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국 보고안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동현: 질의에 앞서 현재 인원 197 명으로 196 명이 최소 정족수입니다.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교육자치국 보고안건에 대해 질의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사정기 협의체를 통해 예비군 학습권에 대해 논의하셨는데 예비군 관련 필기본 공유 사업 등의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육자치국장 정유미: 우선 현재까지 총학생회 그린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업은 5월 2~4일 5월 8~1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예비군 훈련 전에 예비군 연대 측으로 공문을 발송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에서는 출석 인정 관련 매뉴얼과 강의 자료 공유 등을 담아서 교수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예정 중에 있으며, 현재 학사정기협의체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총학생회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 강의 자료 공유 등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학부 B 반 2 학년 대표 최희영: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B 반 2 학년 대표 최희영입니다. 경영학부 경영학 4 학년 필수과목인 경영전략에 대한 수업 여석을 늘려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졸업을 해야 하는 인원 에 비해 여석이 부족해 졸업에 어려움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의장 류동현: 일단 말해주신 해당 내용은 확인했고, 경영경제대학 차원에서나 단과대학 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학과 3 학년 대표 최은재: 사회학과 3 학년 대표 최은재입니다. 예비군 학습권 관련해서 특정 교수님들은 강의자료 제공을 안 해주실수도 있는데, 대처 어떻게 하실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자치국장 정유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 측에 요구했으나 교수권과 관련해서 학교 본부 차원에서 강요할 수 있는 방안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본부 측과 총학생회 측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 공문 작성 및 교수님들께 발송을 통해서 출석 인정 관련된 매뉴얼을 보내드리는 방안밖에 없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 예정 되어 있는 학사정기협의체를 통해 안전이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발언 가능 인원 3 인을 초과했으므로, 추가 질의를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합니다. 추가 질의 원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가질의 원하시는 대표자께서는 3 분으로 파악했습니다. 3 인 추가 발언권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 후,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자 3 인에 대해 추가 발언권을 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대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이 199 명 중 찬성 170 명 반대 12 명 기권 17 명으로 해당 안전이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안전이 가결됨에 따라 3 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부 B 반 학생회장 한형탁: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B 반 학생회장 한형탁입니다. 성적 관련해서 세부성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성적 공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세부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본인 성적을 파악하고 성적 이의제기를 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동현: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6 개의 안전에 대해 학교 본부에 주장을 펼쳤다 라는 내용이고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학교 본부에 더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영학부 B 반 4 학년 대표 이민홍: 안녕하십니까 경영학부 B 반 4 학년 대표 이민홍입니다. 예비군 학습권 관련해서 언급해주신 날짜가 학생 예비군으로 알고 있는데 병무처에서 중앙대랑 숭실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5 월 17 일 동원훈련에 대해서도 교수님들께 공문을 요청 드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자치국장 정유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해서 내용 포함하여 공문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3 학년 대표 김호준: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시스템공학부 3 학년 대표 김호준 입니다. 예비군 학습권 보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교수님께서 강의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 빈번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권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3 년동안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는 교수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예비군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학습 권의 침해가 좀 더 크다고 생각되어서 이미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따로 실현해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국장 정유미: 우선 강의자료의 경우에는 3 년동안 사용되었던 강의자료가 있으나 매년 마다 트렌드를 반영하는 강의의 경우 매년 강의자료나 학습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해당 부분을 다시 짚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학교 본부 측의 답변이 있었구요. 이를 강제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후속 예정 되어있는 학사정기협의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강의자료와 동일한 강의를 최대한 배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은 주장하면서 학사정기협의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자치국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대사업국 보고하겠습니다. 연대사업국장님께서서는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대사업국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 65 대 총학생회 그린의 연대사업국장 창익 ICT 공과대학 융합공학부 20 학번 이지원, 전체학생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연대사업국은 교내외 다양한 사회적 계층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대사업국 1 학기 진행 완료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우분들이 중앙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양한 제휴 할인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체들과 일정 기간 동안 제휴 협약을 맺는 외부 제휴 사업을 상시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총 6 곳의 업체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 상권, 교육, 문화생활 등 제휴분야를 다방면으로 확장하여 학우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2023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차 학내 노동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41 곳의 노동자 휴게실 중 부재중인 장소를 제외하고 39 곳의 휴게실에 방문하여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학내 노동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휴게공간에 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학내 노동자분들의 원활한 업무 계획을 위한 학사 일정표 전달, 분리수거 매뉴얼 정립을 위한 환경미화원분들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3월 16일에도 중앙대학교 직영 식당 조리 노동자분들을 만나뵙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노동 및 휴게공간을 위해 학교 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내 노동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내 노동자분들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 학기 진행 예정 사업입니다.

5월 5일부터 5월 8일 총 3박 4일간 봄 농민학생연대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민학생연대활동은 학우분들이 직접 농촌에서 일손을 도우며 농민분들과 한층 더 깊게 교류하고, 농촌사회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초부터 방문할 마을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과 지속적으로 연락 중이며 농활 대표자 회의를 주최하여 농활 참여 실수요조사 실시 및 사전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중순에는 중앙대학교 학우분들과 함께 하는 “동작구 연계 봉사활동”을 기획 및 주최하여 중앙대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와의 연대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 초부터 구체적인 활동 기획을 진행중이며 학우분들께서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대사업국 사업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연대사업국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학내 노동자 연대활동에 있어 질의가 있습니다. 작년 연대사업국과 인권복지위원회에서 학내 노동자 연대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노동자 휴게공간에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였고, 해당 부분을 인권복지위원장님께도 인수인계를 드렸고, 임기 말에 총무팀에도 해당 사항을 전달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인수인계 받으셨거나 하시는 게 있으신지, 시설 개선에 관한 진행 사항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학내 노동자 분들께서 학사정보나 분리수거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지만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사항은 업체나 총무팀(대학 본부 측)에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혹시 올해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셨는지, 토로하셨다면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연대사업국장 이지원: 우선 첫 번째로 질문 주신 작년 인권복지위원회와 연대사업국에서 진행했던 인수인계를 받았냐는 질문은 인수인계 받았고 어떠한 내용들이 작년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1차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적인 측면이 총무처에 전달된 상태이나 그 이후로 개선된 사항은 크게 없다고 답변주셨고 실제로 노동자 간담회에서 노동자분들께 들은 대답 역시 작년과 대비하였을 때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단순히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4월 초에 현재 총무처에 미팅을 요청한 상황이고 빠른 시일 내로 미팅을 진행하여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학내 노동자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2차 간담회에 주목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역시 학내 노동자분들께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들은 것은 해당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역시 해당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들이 업체 및 총무처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학부 학생회장 신승준: 건축학과 학생회장 신승준입니다. 단순 궁금증이 있는데요, 사업의 의도와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동자분들의 휴게 개선을 위해 학교 본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해가는 활동, 즉 본부와와의 조율을 노동조합과 본부의 전문적인 소통이 아니라 왜 한 단계 거치는지 그 매체가 왜 총학생회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대사업국장 이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동자 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불편사항들을 업체나 총무팀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말씀해주셨고, 저희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어 연대사업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사업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사업국장님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세요.

일상사업국장 김범석: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 65 대 총학생회 그린의 일상사업국장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19 학번 김범석 전체학생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일상사업국은 학우분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상사업국 1 학기 진행 완료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우분들의 전자기기 방전 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행사 진행 시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시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등 학우분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여 학교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개강에 맞춰 평일 11시부터 18시까지 총학생회실에서 대여/상주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둘째, 학우분들이 화장실 불법 카메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교내 불법 카메라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 20일부터 3월 3일, 약 2주간 교내 건물 화장실 및 샤워실을 대상으로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및 총학생회가 담당 구역을 배분하여 정기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수조사가 완료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학우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내 불법 카메라 정기 전수조사 완료’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12월 13일, 학업에 몰두하는 기말고사 기간, 학우분들의 시험 기간을 응원하기 위해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310관 1층 로비에서 야식판매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프라인 피드백을 함께 진행하였고, 2023년 1학기 개강 인사의 야식 판매 사업 관련 설문조사와 함께 검토하여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야식판매사업에서 세부 품목 및 수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학우분들의 수요가 있었지만 중단되었던 총학생회 주도의 학교 점퍼 공동 구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간 디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238명의 학우분들의 응답 선호를 반영하여 3가지 색상 및 영문/한자 디자인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3월 2일부터 8일까지 총 7일간 구매 신청 및 시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 8일 신청 마감 후, 총 2,855벌의 학교 점퍼를 주문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예기치 못한 상황 시 배치된 생리대를 통한 학우분들의 편의를 향상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9Days’와 ‘십시일밥’과 ‘학교에서 만나는 십시일생 프로젝트’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고, 중/대형 생리대 비치함 및 생리대, 제습제를 제공받아 102관, 중앙도서관, 301관, 303관, 310관 총 5곳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총학생회에서 수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생활관 운영 및 시설, 소통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관 본부와 소통하고자 생활관 소리함 상시 운영 및 총학생회-생활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총 5일간 생활관 이용 만족도 관련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2월 24일 생활관장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3, 4월 생활관 온라인 상시 소통함이 마련되어 있으며, 4월 의견까지 종합된 후, 2차 총학생회-생활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상사업국의 진행 예정 사업으로는 학우분들의 샤워실 이용의 편의와 활용도 향상을 위한 샤워용품 자판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샤워용품이 배치된 자판기를 업체와 입찰하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며, 입찰이 완료되면 이용률이 높은 샤워실부터 순차적으로 일회용 샤워용품 자판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상사업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일상사업국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일상사업국 진행 예정 사업 중 샤워용품 자판기가 설치된다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해당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무료로 진행할지 유료로 진행할지 여부는 조금 더 학교 측과 업체 측과 논의해보아야 할 부분이고, 유료로 진행해서 수익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지, 후생 복지 형태로 사업 금액을 사용할 지 업체, 학교 본부와 조금 더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한 내부 논의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2023-1 학기 교내 불법카메라 전수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회과학대학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할 때 불법카메라 탐지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전수조사에 있어 각 단과대로부터 각 기기를 반납 받고 대여를 하시는 과정에서 기기의 상태를 명확하게 점검을 해주셨는지, 만약에 점검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 전수조사 때는 더 제대로 점검을 해서 대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사업국장 김범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전 오후 타임으로 두 번을 나누어서 대여를 해드렸고요, 반납을 했을 시에도 항상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했고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는 배터리 상시 교체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어 일상사업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정책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국장님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세요.

전략정책국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 65 대 총학생회 그린의 전략정책국장 창의 ICT 공과대학 융합공학부 김수연, 전체학생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전략정책국은 총학생회의 공약 및 정책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생회칙에 따라 사업과 정책들이 공정하게 실현되도록 관리, 점검합니다.

진행 및 완료 사업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인 중대중심을 리뉴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내 만료된 정보를 삭제하고 제 65 대 총학생회 정보로 변경 완료 및 제휴 게시판 활성화를 통해 학우분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사항은 배부된 자료집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학우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업로드해 중대중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도서관 앞 흡연구역 재정비를 위한 기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앞 흡연구역으로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교내 흡연구역 위치 안내 카드뉴스를 총학생회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학우분들의 건의사항을 학교 측에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담당부처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교내 흡연구역 개선 및 중앙도서관 앞 흡연구역 재정비에 있어 학우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사업 전반의 공지를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공지해 유학생 학우분들의 학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다국어 번역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중국어, 영어 분야로 나누어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중국어 분야 3명, 영어 분야 4명의 다국어 TF팀원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2023-1 학기 동안 총학생회 전반의 발행 게시물 번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예정 사업에 관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시험기간 중앙도서관 앞 에스컬레이터 연장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도서관 앞 에스컬레이터 운영시간인 ‘08시 ~ 21시’를 ‘08시 ~ 24시’로 연장하여 학우분들께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총학생회 정보전달 프로세스, 총학생회 공약 이행도 점검 예정에 있습니다. 2023-1 학기, 2023-2 학기 두 차례에 걸쳐 학기 말 공약 이행도를 보고하고, 한 학기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각지대 조명 파악 및 개선사업 예정에 있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와 협력하여 학내 조명 사각지대를 파악해 담당부처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명 추가설치 및 조명 사각지대 개선을 통해 학우분들께서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중앙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우분들의 쾌적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전략정책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학과 3학년 대표 최은재: 감사합니다.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3학년 대표 최은재입니다. 그린이 출범할 때 공약 중의 하나로 흑석역을 급행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게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진행을 포기한 건지 궁금합니다.

의장 류동현: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동작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작구청 측에서도 타당성 검사를 위한 용역 검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용역검사를 시행할 업체들이 입찰 진행 중에 있고 그 입찰이 지금 6개월째 진행 상황이라고 전달받긴 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 달 그 4월 중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진행 된다면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공약에서 말씀드렸드시피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어떤 입장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전하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아실 수 있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하나 첨언하자면 총학생회 그린의 공약사항은 흑석역을 급행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흑석역이 급행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중앙인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략정책국 보고안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전략정책국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국장 김태령: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 65 대 총학생회 그린의 홍보소통국장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과 20 학번 김태령, 전체학생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홍보소통국은 더 많은 학우분들께 총학생회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발행물 디자인 및 제작, 홍보마케팅 및 소통창구를 활용한 사업 홍보 및 소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소통국 1 학기 진행 및 완료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SNS 운영 및 소통창구 관리입니다. 학우분들께 총학생회와 학교 소식을 즉각적으로 전달하고, 각 소통창구를 통해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3 가지의 SNS 및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SNS 는 총 31,484 명의 학우분

들이 소식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임기 시작 이후, 페이스북 페이지는 최근 한 달 동안 1.6 만 명의 사람들에게 게시물이 도달되었고, 인스타그램은 29,007 개의 계정에 도달하였으며 임기 시작 이후 팔로워가 5,500 명에서 8,739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는 7,453 명에서 8,744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입니다. 각종 SNS 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을 학우분들이 좀 더 알기 쉽고,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시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디자인 및 제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사/긴급공지/사업 홍보/설문조사/운영 안내 등 48 건의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작하였고 그 외에도 전략정책국과 협력하여 중대중심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오프라인 및 인쇄 지원 콘텐츠 제작입니다. 총학생회의 교내 오프라인 홍보물이나 인쇄 제작물을 통하여 학생자치를 알리고, 중앙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중앙대학교 공식 다이어리’, ‘교내 오프라인 홍보물’, ‘새내기 가이드북’ 등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넷째, 마스코트 푸앙 관리입니다. 학우분들이 중앙대학교 마스코트 푸앙을 친숙하게 접하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마스코트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푸앙 공식계정 운영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공식 인스타그램 운영을 통해 ‘푸앙’을 화자로 설정하여 마스코트의 친근함을 증대시켰고, 온라인 콘텐츠 상시 제작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푸앙’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굿즈 및 디자인 제작입니다. 2023 년 1 학기 전면 대면학사를 맞이하여 2023 년 3 월 26 일 개강인사를 진행함에 따라, 마스코트 ‘푸앙’ 굿즈 제작을 통해 학우분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굿즈 목록은 L 자 파일 1 종, 띠부띠부씰 스티커 5 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국 사업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학과 4 학년 대표 김승윤: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4 학년 대표 김승윤입니다. 홍보소통국에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게시한 글을 예로 들겠습니다. 대체텍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글에 대체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글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체텍스트는 이미지의 경우에 이미지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미지를 설명하는 글이 쓰여야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본 게시물의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소통국장 김태령 : 저희가 우선 대체텍스트를 작성할 때 각 국에서 업무 요청서를 받은 후에 홍보소통국 내에서 카드뉴스나 포스터 디자인을 만들고 각 국에서 포스터나 카드뉴스에 맞는 대체텍스트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전달해주면 저희가 업로드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체 텍스트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임기 내에 카드뉴스나 홍보물을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많은 학우분들께서 홍보물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 다른 분께서 먼저 들어주셔서 발언권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영학부 B 반 부학생회장 홍세연: 경영학부 B 반 부학생회장 홍세연입니다. 중앙대학교 연간 다이어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많은 양의 다이어리가 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혹시 학교 측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다이어리 수량을 정하고 있고 배부하는 것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의장 류동현 : 네 우선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예산에 따라서 조금 제작되는 수량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작되는 수량에서 단과대학 학생들의 인원 비율에 따라서 그 제작된 수량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답변을 아까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에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그 대체 텍스트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게시물 작성 시에 대체 텍스트를 따로 작성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사용하시려면은 장애 학생분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인식을 하시려면 자동으로 하실 수 있게끔 되어있고 그 본 게시글과는 따로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따로 탑재해서 그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물류학과 부학생회장 박두진 : 리더스포럼에서 푸앙이가 공식 마스코트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총장님께 들었는데 푸앙이 SNS 에는 중앙대학교 공식 마스코트라고 되어있어서 혹시 공식 마스코트로 된 건지, 그리고 아니라면 공식 마스코트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의장 류동현 : 제가 알기로는 그 2019 년도에 총학생회에서 마스코트 공모전을 해소하고 이제 당선된 작품이 푸앙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정확하게 어떤 게 팩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 사이트에서도 그 마스코트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 재단에서 좀 이거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라는 여론도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이게 그냥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마련한 마스코트인지 공식적인 마스코트인지를 좀 확인 후에 그렇게 좀 더 명확히 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 또 추가적인 발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지금 3인에 대한 발언권은 모두 드려서 추가적인 의결 이후에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보소통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사무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무국장님께서서는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세요.

회계사무국장 박고은: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 65 대 총학생회 그린의 회계사무국장 창의 ICT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21 학번 박고은, 전체학생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회계사무국은 총학생회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및 사무 관리를 통해 총학생회비의 사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회계사무국 1 학기 진행 완료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내역 및 증빙서 세부 공개입니다.

총학생회비의 재정 공개는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학우분들의 정당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내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들을 처리하고, 총학생회비 내역 관리와 영수증 취합을 통해 투명한 세부 회계내역과 영수증 증빙서 파일을 작성하여, 매달 말일 중대중심 홈페이지 ‘총학생회 회계 및 단과대 회계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23 년도 1 학기 중앙감사회의 간사 참여입니다.

지난 2023 년 03 월 06 일 <2023 년도 1 학기 중앙감사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앙감사회의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회비 사용의 신뢰 증진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중앙감사회의에서 논의된 회계 가이드라인 주요 사항으로는 ‘보다 투명한 회계를 위한 간이 영수증 취급 방법’, ‘단위별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회계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회칙화’, ‘특별 감사 결과 공개 의무 명시’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감사회의 명칭 조정 제안 등의 회칙 체계 보완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의견들을 참고하여 총학생회장단과 함께, 회의 목적과 순기능을 위해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사무국 사업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과 3 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 중앙감사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확인하지 못해서 혹시, 중앙감사회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중대중심이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회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중앙대학교 내에는 회칙으로 규정된 기구 외에도 많은 소모임이나 동아리가 있습니다. 해당 소모임이나 동아리에서도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회계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회계 가이드라인을 자료집 또는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 제 58 조 4 항에 따르면 중앙감사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의록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표자분들 대표자분을 포함해서 다른 회원분들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대 중심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뉴스 형태로 좀 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계사무국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의 보고안건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각 위원회 보고안건입니다. 문화위원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위원장님께서서는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세요.

문화위원장 김성민: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 65 대 총학생회 그린의 문화위원장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18 학번 김성민, 전체학생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위원회는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대학 문화의 흐름 속에 학우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대학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입니다.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중앙대 학우분들이 즐기는 모든 문화를 위해 65 대 총학생회 문화위원회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위원회의 첫 번째 보고 사업은 공간조정회의입니다.

공간조정회의는 학우분들의 문화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공연시설, 무대 등 연습 및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들에 대해 공간조정회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10 판 소극

장, 운동장, 자이언츠구장, 공연연습실, 풍물패연습실이 해당되며 단위별로 협의를 거쳐 공간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공간조정회의에 대한 공지는 문화위원회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과 2월 그리고 3월과 4월을 각각 묶어 총 2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2개월 단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수 방식은 구글폼으로 받고 있으며 공간조정회의가 끝난 후 중대중심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 사업은 시스템 대여사업입니다.

시스템 대여 사업을 통해 공연 및 다양한 행사 진행을 위해 시스템 대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여 품목으로는 마이크, 마이크 스탠드, 앰프 등이 있으며 교내 단위체의 공연 시에는 Full system 설치 및 오퍼레이터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앙대학교 문화위원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위원회 인스타그램 시스템 대여 사업 안내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사업은 제휴 사업입니다.

제휴 사업을 통해 교외 문화 행사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문화생활 비용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매달 새로운 문화 예술 제휴 콘텐츠를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3월의 제휴 플랩풋볼 4월의 제휴 연극 뷰티풀라이프, 리미트와 제휴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위원회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예정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LUCAUS 개최입니다.

LUCAUS(루카우스) Let's Unite CAUS 는 '뭉쳐라, 중앙인이여!'라는 뜻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중앙대학교 축제입니다. 가을에 진행됐던 작년과 다르게 5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축제 기획단 112명을 모집하였으며 축제기획단원분들과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어질 대면 축제 운영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배리어프리화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위원회 업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인의 생활에 문화를 그리는 문화위원회가 되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학과 4 학년 대표 박혜림 :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4 학년 대표 박혜림이라고 합니다. 원래 축제하고 문화위원회 소식이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중대중심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왜 사용을 안 하시게 되는지 여쭙보자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위원장 김성민 : 해당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축제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저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더 많은 학우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이제 루카우스 청진낭만 축제 계정이 신설됨에 따라 페이스북 또 플랫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의장 류동현 : 네 발언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회학과 2 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윤 :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2 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윤입니다. 공간조정회의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다. 공간조정회의가 지금은 공조를 통해서 공간을 사용하면 공간 사용에 대한 권리만 부여받고 후의 시설물 사용요청서를 작성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공간을 사용하는 각 단위 대표자들에게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사용이 되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문화위원회 측에서 공간 조정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어 학교 측과 연계를 한 다음에 신청하면 시설물 사용 신청서 없이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정리해서 방호실에 전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위원장 김성민: 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물 사용신청서라고 하면 안전관리나 책임소지 화재 등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방호실 제출은 의무로 이뤄져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공간에 대해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위원회 측에서 모든 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번 신고를 받고 있고 주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동현 : 네 추가적으로 발언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 학년 대표 조운경: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 학년 대표 조운경입니다. 시스템 대여사업 중에서 이전에는 조명이나 폴시스템도 대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현재는 조명이 대여가 불가능한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문화위원장 김성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명과 폴시스템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저희 측에서도 선불리 대여해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4 대 비대위 문화위원회 측에 계속 전달 중에 있으며 교육이 완료되는 이후로 정상화에 돌입하여 폴시스템과 조명에 대해 대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 현재 질의 가능 인원 3 인을 초과하였습니다. 추가 질의를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 질의 2 인 확인이 되었고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 추가 질의 2 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 알려드립니다. 현재 참석인원과 찬성, 반대, 기권의 수가 맞지 않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2 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찬성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 대표자 수 확인)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권 대표자 수 확인)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203 명 중 찬성 171 명 반대 15 명 기권 17 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경영학부 B 반 부학생회장 홍세연: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B 반 부학생회장 홍세연이라고 합니다. 공간조정회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공간은 모르겠지만 대운동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세 개의 단위가 모여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단위에서 충분한 인원이 나오지 않아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공간을 빌리는 단위에 평균 참석 인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위의 경우 공조회의를 통해서 단위의 결속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서 불만을 제시하는 학우분들이 나왔던 상태입니다.

문화위원장 김성민: 해당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단체라고 하면 과 소모임 축구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10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위원회 측에서는 과 소모임에 대해 공간조정회의를 진행하여 보장을 대여해드리고 있는데 해당 단체에 대해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적으로 단위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문학과 부학생회장 김재환: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어문학과 부학생회장 김재환입니다. 올해 초에 문화위원회에 총장배 개최 의사에 대해 문의드렸을 때 올해도 총장배 개최 의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중앙동아리 리베로 임원직을 맡으면서 리베로를 개최했을 때 동아리 하나만의 운영으로 개최하다 보니깐 애로사항이 많아서 올해에도 리베로 개최 의사가 있지만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총장배에 대한 수요도 높고 진행에 대한 필요성도 느껴지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가 있어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완전한 대면학사로 전환이 되었고, 연초부터 모든 행사가 재개되었는데 올해는 왜 총장배 개최의사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총장배 관련해서는 문화위원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장배라는 행사명처럼 제가 일단 전해듣기로는 총장님이 이제 총장배를 진행하면서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총장배를 하기를 희망하지 않으신다라고 네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해당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해당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학사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다면 기존 진행하던 대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위원회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권복지위원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복지위원장님께서서는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세요.

인권복지위원장 이정연: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 65 대 총학생회 그린 인권복지위원장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20 학번 이정연, 전체 학생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인권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건강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인권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 업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중앙도서관 내 사물함에 대한 신청 및 배정, 철거 민원 접수와 문의 사항 해결과 같은 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물함 이용을 위해 정규학과와 계절학기 시작 시기에 신청과 철거가 이루어지며 철거가 진행된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여 학우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학기 시작 전 고장, 파손 사물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용료 입금현황을 상시로 확인하여 원활한 사물함 이용을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심야시간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순찰하고 각종 위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혈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캠퍼스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치안 및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매 학기 규찰대원들을 선발하여 대면학사 시행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 깊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동작경찰서와의 합동순찰, 2기 대학생 순찰대로서의 활동으로도 범위를 넓혀 다양한 순찰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건강센터 운영 시간 이외에도 많은 학우분들이 가벼운 타박상이나 상처를 입는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약품 사업을 운영합니다. 기존 응급의약품 나눔 창고의 위치에서 더 많은 학우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중앙도서관 1층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사용방법 및 구비된 응급의약품 목록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카드뉴스를 통해 학우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넷째, 중앙도서관을 사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학우분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더 쾌적한 학습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꾸준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이 학습환경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스탠딩 책상 설치와 구강 청결 용품 비치에 대한 선호도와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도서관 내 학습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성폭력 피해 발생 시 학내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창구에 대한 상시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며 구글폼을 통하여 본인 혹은 대리인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에 대한 사건 해결 진행방법이 동원됩니다.

여섯째, 재선거 단위 선거운동본부를 대상으로 인권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소외,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인권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자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업계획 및 정책 기조를 점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질의서에 대한 선거운동본부의 답변은 SNS에 게시하여 학우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2023년도 5월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년이 된 학우분들을 축하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면학사가 진행됨에 따라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학우분들에게 의미 있고 따뜻한 성년의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여덟째, 캠퍼스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2023학년도 1학기 학생대표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후, 교육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여 5월 중순 중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인권센터에 전문강사 초빙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3 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면 학사가 진행됨에 따라 학우분들의 복지와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권복지위원회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인권복지위원회 보고안에 대해 질의가 있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학부 2학년 대표 임동하: 보고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의결될 보고안에 대한 건의인데 지금까지 추가 질의에 대해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두 찬성했고 그 수도 상당히 과반수 상당히 많은 분이 찬성해주셔서 건의하고 싶은 게 앞으로의 보고안에 대한 추가 질의 의결에 대해서 전부 찬성으로 하니까 대신 질의에 대한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생산적이고 질의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의장 류동현: 우선 대표자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 발언자의 수를 의장이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자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진행하는 것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고 가결된다면 추가적인 발언권 부여에 대해 추가적인 의결을 하지 않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방금 의사 진행 발언 제안해주신 분의 의견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인권복지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 총 두 위원회의 업무보고만이 남았고, 추가 질의를 할 대표자가 있는지 아직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지금 바로 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권복지위원회 보고안에서 추가 질의를 의결을 해야 될 경우 그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질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걸 한 번 더 의결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네 그러면은 지금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세 분의 발언을 부여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만약에 이번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추가 질의에 대한 추가 의결이 생긴다면 그 이후에 장애인권위원회에 대한 의결 한꺼번에 그때 가서 의결하자는 말씀입니다.

의장 류동현: 그러니까 각 산하위원별로 그거에 대한 의결을 하자는 말씀인거죠?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산하위원회 별이 아니라 추가 질의를 할지에 대한 여부가 확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복지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의 추가 발언자가 없을 경우에는 의결을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의장 류동현: 그 말이 각 위원회 보고할 때마다 추가 안건이 있으면 제한을 풀자라는 말씀이 아닌가요?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요지는 지금 바로 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회자 서예나: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인권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의 대표적 수를 보고 만약 그 수가 3인을 초과한다면 인권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고할 위원회 의결 제안을 한꺼번에 의결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의장 류동현: 그러면 그냥 우선 세 분 계신 분 먼저 진행하고 추가 발언자분이 계시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추가를 하시면 그 뒷순서에 졸업식 위원회 보고도 남아 있으니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도윤: 인권복지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의혈지킴이에서 가로등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의혈지킴이 코스에 해당하는 302 관과 303 관 사이 돌계단을 내려가는 길 가로등이 작년까지만 해도 켜져 있었는데 올해는 켜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파악하셨는지 여쭙보고 싶고요. 만약에 어 파악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부분 시설팀 측에 요청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중앙도서관 사물함 이용료의 회계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선 자료집 110 페이지에 그 2023년 3월 16일 사물함 온라인 신청 금액 관한 건에서 6000 곱하기 2 + 8000 곱하기 3을 하면 36000 원이 나와야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2023년 3월 27일에 거래내역의 조건에 대해서도 여기 비고란에 적혀 있는 계산식과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 건지 오류인건지 여쭙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물함 관리비 사용 내역도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사물함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엄연한 공금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출에 대한 영수증 첨부지가 작성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작성이 되어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많은 이용자분들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실 방법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중



대 중심이랑 총학생회 그다음 총학생회 sns 그리고 여기 자료집 구글 드라이브 상 어디서도 영수증 첨부지랑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권복지위원장 이정연: 일단 그 가로등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의혈지킴이 같이 돌았을 때는 그 말씀해주신 가로등 커져있는 걸 보아서 이게 아무래도 켜졌다 꺼졌다 하셨던 거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전략정책국과 함께 협력하여 시설팀에 이제 건의 드리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총액이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못해봤는데, 총액을 보고서 이제 여러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놓친 부분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내역을 더 꼼꼼히 해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첨부지에 대해서는 영수증 첨부지가 환불 금액도 많고 관리원분들께 나가는 영수증도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영수증을 다 sns에 올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도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학우들에게 투명하게 내역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중심이나 중대중심 인권복지위원회 게시판에 올려서 모든 분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인권복지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에 동시에 질문해야 되지만 순서가 인권복지위원회가 먼저 있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표자 회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선거운동본부 인권 질의서 발송 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선본 외에도 중선관위가 전달을 부결하거나 중선관의 의결을 통해서 답변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나 또는 선본이 지각 제출한 경우 또는 선본이 답변을 거부한 경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모두 공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3월 재선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반영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2학기에 있을 11월 선거에서는 해당 부분이 반영되어서 학우분들이 선본이 어떠한 입장에서 선본질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는지 또는 작성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권질의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일정 마감 기한을 각 선거운동 본부에 요청을 드린 바 있으며 그 요청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단위도 있고 이 인권 질의서에 대한 답변하는 사항이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 정도로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의무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부분에서 뭐 지각을 한다든지 뭐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좀 명확히 밝혀서 각 선거운동본부에 그런 의사나 일련의 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학과 부학생회장 박두진: 안녕하세요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 부학생회장 박두진입니다. 의혈지킴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혈지킴이가 캠퍼스 내에서 학우들의 안전 그리고 치안에 기여하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데, 학우들의 행동에 제재하는 건에 관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학생들을 규제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권복지위원장 이정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혈지킴이 제재 행위에 대한 근거는 캠퍼스 관리 규정에 의거하는데 이런 캠퍼스 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이제 학우분들께서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셔서 의혈지킴이 Q&A 카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캠퍼스 관리 규정에 대한 근거와 제재된 행위 그리고 이런 행위가 제재된다는 캠퍼스 관리 규정 사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제재 행위를 단속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제재 행위를 비롯해서 그 태도와 관련된 문제들도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저희가 친절한 방식으로 의혈지킴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을 첨언하자면 의혈지킴이는 학교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 있을까요? 의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발의해주신대로 인권복지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장애인권위원회와 졸업준비위원회에 대한 질의 시 제안을 푸는 것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질의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 찬성 168 명 반대 19 명 기권 16 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전자전기공학부 학생회장 박재원: 사물함 회계 내역을 보면 수리비로 나간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현재 학과부 학생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물함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등록금에 포함 되어있는 금액으로 학교 시설팀에 요청하여 수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학생회장은 인지하고 있어 저희 과의 경우 이용료나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중앙도서관 사물함은 이와 별개의 사물함이라서 따로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권복지위원장 이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중앙도서관 사물함은 학생들이 내신 사용 이용료를 통해서 운영되고 관리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모아진 이용료를 통해서 학우분들의 사물함 신청을 배정주시는 사물원 관리요원을 선발하고 이 관리원분들께 월급을 지급하는 돈으로도 쓰이고 어 회계 내역을 보셨다시피 출금 내역을 보시면 사물함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물함 이용료에서 나가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철거를 진행할 때 철거용 비닐이나 혹은 철거 전에 단체로 문자를 보낸 문자 비용 등에도 사물함 이용료가 쓰이고 있어서 이런 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권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 다음으로 장애인권위원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권위원장님께서서는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세요.

장애인권위원장 박세욱: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 65 대 총학생회 그린의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 21 학번 박세욱 전체학생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장애 학우분들의 기본권 보장과 비장애 학우분들의 인식 개선, 장애 감수성 향상으로 배리어프리한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위원장단과 연대사업국, 일상사업국, 정책기획국, 학술사업국, 홍보소통국이 있으며 총 7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 및 완료 사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장애/ 비장애 학생 대상 소통창구를 운영사업입니다.

장애/비장애 학우 모두로부터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설문을 토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시설적인 장벽이 존재함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사업으로 편성하여 진행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해당 사업 보고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학생 간담회 참여 입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를 가진 신입생을 대상으로 OT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 년 2 월 14 일 간담회에 참여하여 총학생회와 장애인권위원회 사업을 설명하였습니다.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질의 응답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 학생 교육권 가이드라인 제작 사업입니다.

과거 장애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본 사업이 시행되어,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충분한 보장을 위해 교수자와 학생 대상으로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2023 년도는 대면강의로 인해 비대면 강의 위주로 제작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청각 장애를 가진 경우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는 구화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문에 교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칠판을 보고 말하는 경우 내용을 이해 할 수 없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선거 단위 선거운동본부 대상 인권질의서 발송 사업입니다.

교내 모든 구성원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선거운동본부 대상으로 인권 질의서를 발송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관련 사안에 대해 정책기조를 점검할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와 연합하여 제작, 발송하고 SNS에 게시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리어프리 지도 제작 사업입니다.

캠퍼스 내 모든 구성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방해물이나 접근성이 결여된 경로를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배리어프리 경로 지도는 서울캠퍼스 내 물리적인 배리어프리 정도를 확인하는 척도로 교내 송사나 개선 등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작구청과 함께한 캠퍼스타운 프로젝트로 후문에 중앙창업 숲 마당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사항을 점검하고 배리어프리 지도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자동문 설치 현황 조사가 완료되어 지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진행 예정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중앙마루 이동권 보장사업입니다.

서울캠퍼스는 지리적 특성상 경사가 심하여 정문과 중문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거동 불편자의 이동권 보장하여 배리어프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진행 사항으로는 2023년도 1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시설물 개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시설물 설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한 경사로는 설치가 어려워 엘리베이터 설치로 변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원활하고 조속한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캠퍼스 엘리베이터 음성안내 기능 개선입니다.

엘리베이터 중문 열림 및 닫힘 안내 기능이 부재한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였습니다. 때문에 전체 시설조사와 점검을 통해 시설처에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향 평준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교내 23개 건물에 설치된 44개 승강기를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명이 다해 교체되는 승강기, 안내 기능이 미흡한 승강기 등 기능을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가 끝나면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인식 고취 등을 위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후 내부 회의를 통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장애 비장애 학우 모두의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캠퍼스 자동문 설치 현황 조사 및 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장애 학생 소통창구에서 이동권에 대한 침해 사례로 인지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여닫이문은 끼임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서울 캠퍼스 내 자동문이 설치된 개소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6일 3월 28일까지 13일간 전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24개 건물의 주요 출입구를 조사하였으며, 310관을 제외한 건물에는 자동문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학교 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높이 조절형 키오스크 설치 현황 조사 사업입니다.

앞서 자동문에 대한 이동권 침해에서 나아가 발굴한 사업입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사항으로는 자동문 설치현황 조사중 발견하게 되어 3월 20일부터 9일간 조사하였으며, 교내 18개 키오스크를 확인하였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모든 키오스크가 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키오스크 추가설치, 재배치 등을 요청하여 배리어프리한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봄, 가을 축제 배리어프리 사업입니다.

총학생회 문화위원회와 축기단과 연합 TFT를 구성하여 배리어프리한 축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우가 루카우스 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구역과 부스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으로는 배리어프리존 운영 계획과 체크리스트 등 행사를 기획중입니다. 이후 축제기획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대표자 대상 장애 인권 교육입니다.

장애인권의 정의와 침해에 대한 예방, 배리어프리한 캠퍼스 구성에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본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인권복지위원회의 성폭력 예방교육 일정과 함께 조율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과 Q&A 시간을 가져 장애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대표자들의 자치활동에 도움되는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권위원회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장애인권위원회 보고 안전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 부학생회장 지현준: 사회학과 부학생회장 지현준입니다. 시각장애 관련한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체텍스트입니다. 그러나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한 2023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대상 가이드라인 배포에서는 대체텍스트가 누락 되어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장애학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학대회 안전공고의 대체텍스트가 없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보다 배리어프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내 소수자들은 모든 학생으로 호명되었을 때 그 소수자들의 속성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인권위원회로 활동할 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기획하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학생인권을 다루는 기구가 되면 인원수 증원이 필요할텐데 구체적으로 기구 운영 계획도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권위원장 박세욱: 먼저 학생 인권 또는 장애 인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같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수자 또는 속성이 가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우려를 표하고 있긴 합니다. 때문에 가려질 수 없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로는 외국인 혹은 성소수자 또는 기타 인권에 대한 침해 사례 예비군 인권, 교육권에 대한 것들 또한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인권마다 어떠한 인권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명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인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대체 텍스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중간에 누락이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총학생회 내부의 대체 텍스트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시각장애 학우들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사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대체 텍스트로 추가할 수 있고 추가된 내용은 바로 읽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장애 학우인 우리

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최대한 작성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원수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전문성과 그리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권 전체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증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논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 2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운: 안녕하십니까 사회학과 2학년 대표 대리인 강서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서서 가결된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에 따라 각 위원회 운영 규정을 인정한다 부분에 관해서 질문하고 앞서서 총학생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장인위 운영 규정 규정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이 내용이 사실상 가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운영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운영 규정에 대한 수정과 작성을 위해서 tf를 만드시거나 어떤 방법으로 논의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쭙보고 싶은 것은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4월에 시행되는데 특별지원위원회 장애 학우 참여와 관련해서 학교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은 저희가 아까 자료집에도 제안을 드렸던 운영 규정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전학대회로 안건 상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최소한의 가안으로써 제시를 했던 거고 이 가안이 가결됨으로써 저희는 운영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또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운영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별지원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장애 학생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장애 학생을 포함한 저희 기존 장애인권위원회 위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 본부에 단위 요구안으로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오는 대로 최대한 저희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학과 4학년 대표 김승윤: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4학년 대표 김승윤입니다. 작년에 취임 하셨을 때부터 학생인권위원회로의 개편을 예상하셨고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 학생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의논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 학생들에게 미리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의장 류동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 당시부터 그렇게 말을 했더라기보다는 그 말을 해당 저희 선거 기관 때 공청회에서 아마 제가 답변했던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공청회를 할 당시 제 1대, 2대 장애인권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더 될 텐데 어떻게

장애 인권이나 그 외의 인권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던 그 당시 기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좀 더 체제 개편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임기 이후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좀 더 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지 왜 수렴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아예 수렴하지 않았다고 조금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장애 인권이나 장애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축소라든지 어떤 전형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확장하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산하위원회 체제 개편에 대해서 가결됐지만 부결되더라도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충분한 저희 내부적인 상황을 좀 공유를 드리고서 입장을 좀 밝혀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어서 가결된 것과 별개로 그런 입장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 임화현: 인권 교육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로 비대면 학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체 학생 대표자 대상 인권 교육에 참여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올해 진행하실 학생 대표자 대상 인권 교육의 홍보 방안을 기획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권복지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가 기존에 각각 진행하던 인권 교육을 학생인권위원회로 개편이 되면서 학생인권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해주셨듯이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학생인권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의제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 대상 이거 교육을 진행하실 계획인지 묻습니다.

장애인권위원장 박세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도에 타 단과대 학생회에서 인권 영화제를 시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권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 외에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해당 사업에서도 해당 영화제에서도 참여자가 다섯 명 이내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권 관련된 사업들도 추가로 더 진행하게 될 건데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가장 크게는 먼저 홍보인 것 같습니다. 이 홍보와 더불어서 인권 의제가 아무래도 무겁고 하다 보니 다른 학우들의 흥미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우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더 많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독자적으로 진행했을 때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단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에 해오던 성폭력 예방 교육과 장애인권교육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인권을 포괄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들은 반영해서 사업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과 4학년 대표 박혜림: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4학년 대표 박혜림입니다. 먼저 사업 보고를 통해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여하신 점 확인하였습니다. 아까 이전에 장애인권위원회 이름 변경 안건을 진행하면서 장애학우 분들의 의견이 배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2월 14일에 간담회에 참여했으면 충분히 사전에 서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권위원장 박세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미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사업을 인권복지위원회랑 장애인권위원회의 사업을 합치려는 이유는 또는 개편하려는 이유는 시점에 대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해당 기간은 방학기간이었고 방학기간에는 방학기간에 그 이번에 의결이 되었던 안건을 얘기를 논하고 있지는 않았습시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장애 학우를 학우분들께 불필요한 뭔가 내용과 또 혹은 걱정을 만들 수 있고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정확하게 얘기가 나온 방학 기간에 진행된 사업들을 모든 위원회와 모든 산하위원회와 총학생회에 대한 사업들을 피드백 하는 시간이 있었습시다. 3월 초에 피드백을 하면서 방학기간에 장애인권위원회 사업이 특히 부족하고 진행된 내용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발굴을 원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 추가로 발굴하고 확장하고 있었습시다. 그런 와중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본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3월 이전에는 구체화 된 게 없었고 구체화 된 시점이 개강 후 3월 이후였기 때문에 해당 간담회 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었습시다.

사회학과 3학년 대표 최은재: 사회학과 3학년 대표 최은재입니다 업무 관련 문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정문 쪽이 신호등이 없어 눈치보고 건너는 상황인데, 장애 학우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 분들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지, 이걸 학인위로 개편했을 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의장 류동현: 사실 네 우선 그 학교 정문쪽이라고 하시면 제가 어떤 위치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중앙대병원 앞 정도의 사거리는 저희 학교 내에 있는 범주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생활권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의 범위로서 인정된 구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학교랑 어떻게 진행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동작구청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부서에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범위를 잘못 이해한 걸까요?

사회학과 3학년 대표 최은재: 그 범위가 맞고요, 흑석역도 동작구청과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같이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의장 류동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정문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그 점자 보도블럭도 끊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추가적인 저희 뭐 동작구청에서는 송실대로는 또 장학금을 거액을 지원하는데 중앙대로는 뭐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 등 여러 사안이 있어서, 제가 그 흑석역 관련해서 업무를 보러 동작구청에 가면서 동작구청장님과 일정을 좀 마련하려고 계속 시도 중인데 또 뭐 잘 만나주시지 않으셔서, 자리가 마련되면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자료화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자 서예나: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인권위원회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준비위원장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 65 대 총학생회 그린의 졸업준비위원장 창의 ICT 공과대학 융합공학부 20 학번 박수연, 전체학생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졸업준비위원회는 예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앨범 촬영 및 앨범 제작 등 졸업 관련 제반 업무 및 학우분들께서 졸업 이후의 진로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졸업준비위원회 1 학기 진행 완료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년도 2 월 학위수여식 기간 졸업앨범 및 졸업기념품 배부입니다.

졸업 앨범 교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3 년도 학위수여식 기간인 02 월 13 일 ~ 02 월 17 일 동안 310 관 B602 호에서 졸업 사진 촬영 및 앨범 구매하신 학우분들의 앨범과 액자 수령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310 관 B602 호에서 졸업 기념품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졸업기념품 배부를 진행하였습니다. COVID-19 로 인해 대면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학우분들을 위해 택배 발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2023-1 학기 졸업학년 대표자 회의입니다.

2023 년 03 월 21 일 20 시에 310 관 613 호에서 최고 의결 단위인 졸업학년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앨범 입찰 업체에 소개 후 투표를 통해 2024 년 졸업앨범 제작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정장 대여사업입니다.

2020 년도 1 학기에 COVID-19 의 확산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정장 대여사업을 정비하여 면접이나 사진 촬영 등의 이유로 정장을 착용해야 하는 학우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성 자켓 4 벌, 바지 7 벌, 여성자켓 7 벌, 치마 5 벌을 구비하고 있으며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네번째는 정기 콘텐츠 제작입니다.

졸업준비위원회 자체 SNS 를 활성화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우분들께 취업 및 진로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취업 및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현재 2023 학년도 상반기 직무박람회 정보를 안내드렸으며 콘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 학기 진행 예정 사업입니다.

첫째로 학위복 대여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학위수여식 기간에 학위복 대여를 하지 못한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를 위해 학기 중 학위복 대여를 진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학위복 대여사업은 사전에 공지되는 일자에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졸업앨범 봄 촬영 및 추가 촬영 진행입니다.

졸업앨범 제작 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된 후에 일정 조정을 후 졸업앨범 촬영 및 구매를 희망하는 학우분들께 과정을 안내하고 교내 촬영을 진행, 홍보할 예정입니다. 2024 년 제작되는 졸업앨범 촬영 희망자를 개인 학위복 사진 및 프로필 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실습 등의 일정이 있는 학과를 위한 추가 촬영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졸업준비위원회 사업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서예나: 졸업준비위원회 보고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졸업준비위원회 보고안건 마치겠습니다. 2023 학년도 1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

리에 함께해주신 대표자분들과 언론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께서 폐회선언 해주  
시겠습니다.

의장 류동현: 폐회 선언.